

雷門

불기 2564년

아호

통감 제152호

雷門寺僧伽大學





구름분을 펼치다

- ※ 수업시간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반 분위기, 웃음소리에 반 스님들 마음이 활짝 핀 능소화 같아서 마음이 편 안해집니다. / 대교과 현근
- ※ 부처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돌아가,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 대교과 서륜
- ※ 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들지만, 수행정진력으로 자등명하여 세상을 밝히리라. / 사교과 화정
- ※ 약사여래부처님, 모든 생명들이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여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 사교과 해주
- ※ 뜨거운 태양처럼 화끈하게 열심히 수행합니다. / 사교과 명허
- ※ 모든 일상 하나하나가 기도가 된다면 누가 누굴 탓하리요. / 사집과 보현
- ※ 한 방울 한 방울 땀방울이 가을 열매를 영글게 한다. / 사집과 우송
- ※ 한 여름 햇살을 머금고 토마토, 호박이 익어가듯 우리들의 수행도 하루하루 아름답게 익어가길 / 사집과 도영
- ※ 호거산하 운문사 법의 비는 감로되어 치문반 웃음꽃 피어나네 / 사미니과 정연하
- ※ 코로나도 날려버릴 2020년 치문반의 열기는 이곳 운문사의 뜨거운 태양과 맞먹는다. 금강경을 독송하며 세상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발원해 본다. / 사미니과 서욱
- ※ 한 번 깜빡인 눈에 구름은 흐르고, 하늘도 열렸다 닫히고... 이 여름이 벌써 그리워요 / 사미니과 대검

雲門

목차



02	호거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현	대비심大悲心으로 만드는 이상세계 명성
06	특별논단	화엄십지설華嚴十地說 연구 ① 명성
10	교수논단	항가를 통해 본 화랑 ② 영덕
16	운문, 운문인	이열치열以熱治熱, 운문인의 여름 편집부
18	학인논단	『금강경金剛經』 사구계四句偈 고찰 도옥
22	방부소감	나의 사랑 운문사 서우
24	선배탐방	포교가 가장 큰 불사 - 23회 졸업생 일지 스님 탐방기 - 지엄
28	외부기고	좋은 불교 문학 작품은 하나의 경전이다 신이산
31	想	세계일화世界一花 지안
32	특별기고	나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 코로나19 속 사리암에서 - 현민
36	차례법문 1	자비명상을 통한 아름다움 찾기 혜동
38	수행의 두레박 하나	나를 바꾸는 소중한 소임생활 수정
40	수행의 두레박 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진유
42	자유기고 1	어서와, 불교는 처음이지? 여관집 주인이 말해주는 '객진번뇌' 탄연
45	자유기고 2	선정禪定과 오신채 덕안
48	차례법문 2	분꽃 속에서 부처를 보다 진욱
50	이 한 권의 책	『세상에 끌려 다니지 않는 단단한 마음공부』를 읽고 서보
52	운문논평	두 번째 화살 편집부
54	운문소식	
55	등불	이 세상의 고통은 자기 몫이 있기 때문이다 편집부

대비심大慈心으로 만드는 이상세계

명성 / 운문사 회주



어느 해처럼 능소화가 피고 보리뚱 열매가 익어가고 산천의 녹음은 짙어져 가는데 우리는 많이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에 새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여러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수많은 것들과 접촉하며, 가지가지 장소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그 행동들 하나하나에 마음을 써야 하고 자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전염될런지 알 수 없다는 불안과 공포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우리의 일상이 모든 것들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상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받는 단 한 사람의 존재조차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환자라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좋은 일의 예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제석천 인드라망의 그물코 하나하나가 서로를 비추며 서로의 흔들림에 공명하고 있다는 중중무진의 연기 이치가 확연히 드러나는 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중생들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는 대의왕大醫王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병을 치유해 주는 대의왕의 핵심은 뛰어난 의술이나 신비한 약이 아닙니다. 바로 환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대비심大悲心입니다. ‘중생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유명한 말은, 모두가 한 몸이라고 보는 지혜의 안목과 대비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재난의 원인에는 우리가 한 몸임을 잊고 우리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고 공격한 어리석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생해야 할 자연생태계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인간의 탐욕은 결국 생명의 터전을 교란시키고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온 생명에 대한 대비심, 그 어떤 생명체도 고통을 바라지 않는다는 자명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발병의 공포가 자칫 서로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려 비난과 고립에 대한 정신적 우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치료하고 보살피서 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처가 번지지 않게 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상처를 비난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일 뿐입니다.

“병을 앓는 이에게는 훌륭한 의사와 같고, 늙고 쇠약한 이에게는 지팡이와 같으며, 온갖 위험과 고난에서 구해주는 부모와 같고, 여름에 먼 길을 가는 이에겐 쉬어갈 큰 나무와 같고, 더위에 목마른 자에겐 맑은 샘물과 같고, 굶주린 이에게는 달디 단 과실과 같으며, 두려워 떠는 이에게는 편안한 의지처가 되어지이다.”

우리가 바라는 고통 없는 이상세계는 위와 같은 보살의 원력과 대비심으로 가득 찰 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으며 오늘도 발원합니다.

우리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

화엄십지설華嚴十地說 연구 1

명성 / 운문사 회주

1. 서언

2. 본경本經의 증취宗趣

3. 본경의 번역 및 조직

4. 십지十地

- (1) 환희지歡喜地 (2) 이구지離垢地 (3) 발광지發光地 (4) 염혜지焰慧地
 (5) 난승지難勝地 (6) 현전지現前地 (7) 원행지遠行地 (8) 부동지不動地
 (9) 선혜지善慧地 (10) 법운지法雲地

5. 결어

1. 서언

『화엄경』은 불타가 자각한 내용을 설한 경전으로서 『불사의해탈경不思議解脫經』 혹은 『잡화경雜華經』이라고도 한다. 성도한 후 제27일에 보리수 아래 적멸도량을 비롯하여 칠처구회七處九會(혹은 칠처팔회七處八會 혹은 칠처십회七處十會)에 걸쳐 설법하였으며 그 내용은 이른바 해인삼매海印三昧 일시병현一時炳現의 진상眞相을 개시한 것이다. 불타의 설법은 어느 경을 막론하고 일단 삼매에 들어가 정신을 통일하고 구상을 완성한 후에 설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법화경法華經』은 무량삼매無量三昧, 『반야경般若經』은 등지삼매等持三昧, 『열반경涅槃經』은 부동삼매不動三昧에 드는 등 각각 삼매에 들었다가 정定(삼매) 으로부터 나와 법문을 설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불타는 설법하기에 앞서 반드시 입정入定하여 청중과 능히 설한 교

법을 관찰하는 것을 상례로 하고 있는데 『화엄경』은 칠처구회七處九會 삼십구품三十九品으로 각 회마다 별정別定¹⁾의 삼매가 있으나 『화엄경』을 통섭하는 삼매는 해인삼매海印三昧이다.

이 경은 해인삼매에 들어가 비로자나법신을 나타내어 연화장세계에 머물면서 문수, 보현 등의 대근기를 상대로 설한 근본법륜根本法輪이다.

청량清涼은 『화엄경』을 찬탄하되,

「大方廣佛華嚴經者 斯乃諸佛之密藏 如來之性海 視之者莫識其指歸 挹之者罕測其涯際 有學無學 志絕窺覷 二乘三乘寧希聽受 最勝種智莊嚴之跡 既隆普賢文殊願行之因 斯滿一句之內 包法界之無邊 一毫之中 置刹土而非隘」²⁾

이라 하여 『화엄경』이 가지고 있는 원만한 뜻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화엄경』이 다른 경보다 특이한 점은 다른 경

이 불佛이 설하는 경 즉 불설佛說인 데 반하여, 이 경만은 불을 설하는 경 즉 설불說佛인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설했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곧 보살들이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화엄경』 각 회의 설주는 모두 보살로 되어 있다. 곧 제1 보리장회菩提場會의 설주說主는 보현보살이고, 제2 보광명전회普光明殿會는 문수보살, 제3 도리천궁회切利天宮會는 법혜보살, 제4 야마천궁회夜摩天宮會는 공덕림보살, 제5 도솔천궁회兜率天宮會는 금강당보살, 제6 자재천궁회自在天宮會는 금강장보살, 제7 중회보광명전회重會普光明殿會는 보현보살, 제8 삼중보광명전회三重普光明殿會도 보현보살이 설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9 서다림회遮多林會는 회주가 불타로 되어 있으나 내용인즉 선재동자가 범을 물음에 53선지식이 차례로 답변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설주가 없는 셈이다.

2. 본경本經의 종취宗趣

화엄은 사사무애事事無碍 상즉상입相即相入의 원융무진圓融無盡을 설하는 내용으로 동정動靜이 함께 원만한 노사나盧舍那를 주로 하고 동적動的인 보현의 행원行願과 정적靜的인 문수의 지광智光을 반적으로 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본경本經은 자각한 내용을 설한 것이라 말한 것과 같이, 참으로 한없는 광명과 끝없는 환희를 간직한 생명의 약동을 묘사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전개되는 화엄의 세계관은 온전히 범신적이며 신비적이어서 전우주는 법신인 비로자나의 현현顯現이며 일초일목 중에도

전 우주의 반영 아님이 없고 일순일초一瞬一秒 중에도 영원을 포함해 있지 않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에 걸쳐 모든 것이 서로서로 관련되어 털끝만큼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는, 실로 장엄하기 비할 데 없는 무한무진의 연기관계를 가지고 있다.

『화엄경』의 종취를 밝히는 데 있어 광통光統은 인과연기이실因果緣起理實으로써 종취宗趣를 삼고, 현수賢首는 여기에 법계法界를 더해서 인과연기이실법계라 하고, 청량淸涼은 다시 불사의不思議를 더하여 인과연기이실법계불사의因果緣起理實法界不思議라고 하였다.

요컨대 『대방광불화엄경』은 통만법統萬法 명일심明一心 즉 만법萬法을 통괄하여 일심一心을 밝힌 것으로서 무진법계無盡法界의 연기관계를 개현한 것이 본경의 종취이다.

3. 본경의 번역 및 조직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 동진東晉 안제安帝 시時에 여산廬山の 혜원慧遠은 그의 제자 법정法淨, 법령法領 등을 멀리 서역에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천신만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경전을 구하도록 하였다. 법령은 우전국于闐國의 남차구가국에 이르러 『화엄경』 3만6천 계를 구해가지고 귀국하였다. 당시 각현覺賢은 중국의 지엄智嚴 스님을 서역 유학 중에 알게 되어 그의 청으로 중국 장안에 이르렀다. 각현은 혜원을 의지하여 건업도량建業道場에서 법령이 가지고 온 화엄범본華嚴梵本을 역출한 것이 『화엄

1) 별정別定 제1보리장회第一菩提場會는 여래정장삼매如來淨藏三昧, 제2보광명전회第二普光明殿會는 심신회十信會로서 아직 보살위에 오르지 못하므로 삼매에 들지 못하고 제3도리천궁회第三切利天宮會는 보살무량방편삼매菩薩無量方便三昧, 제4야마천궁회第四夜摩天宮會는 선복삼매善伏三昧, 제5도솔천궁회第五兜率天宮會는 명지삼매明智三昧, 제6자재천궁회第六自在天宮會는 대지혜광명삼매大智慧光明三昧, 제7중회보광명전회第七重會普光明殿會는 불자주찰니제삼매佛自住剎際三昧, 제8삼중보광명전회第八三重普光明殿會는 화엄삼매華嚴三昧, 제9서다림회第九遮多林會는 여래사자분신삼매如來獅子奮迅三昧에서 설하였다.

2)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疏流義鈔』 권제8, 七十八下 8f.

경』의 전부를 번역한 최초이다. 때는 법령이 가져온 지 10여 년이 지난 동진東晉 의희義熙 14년(418) 3월이다. 모두 60권으로 되었기 때문에 『육십화엄』이라고 하고 혹은 진경晉經, 진본晉本, 구경舊經이라고도 한다. 그 후 260년을 지나서 지과가라(Divākara, 日照)가 가져온 범본梵本에 의하여 현수賢首가 친히 교정해서 그 결여된 부분을 보완해 놓은 것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진본육십권화엄경晉本六十卷華嚴經이다.

진경晉經이 번역된 지 270여 년을 경과하여 당唐 중종中宗 증성證聖 원년元年(695)에 사신을 우진국에 파견하여 구한 범본梵本 45,000계 39품을 그 나라의 삼장 실차난타(Sikṣānanda, 喜學)로 하여금 번역케 하고 현수가 필수筆受한 것이 당본팔십권唐本八十卷 화엄경이다. 이것을 『팔십화엄』 또는 당경唐經, 신경新經이라고도 한다. 현행本現行本은 일조삼장日照三藏이 가져온 범본에 의하여 현수가 보탈補脫한 것인데 이 경본은 권수, 품수가 다 진본보다 많고 비교적 완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역화엄唐譯華嚴으로부터 102년 후 당나라 덕종德宗 정원貞元 12년(796)에 오다국烏荼國에서 바쳐온 것을 계빈국의 반야삼장般若三藏에게 칙령으로 번역하게 한 것이 사십권화엄경四十卷華嚴經으로서 청량의 상정詳定에 의한 것이다. 통칭 『사십화엄四十華嚴』이라 하고 당 덕종德宗의 정원년貞元年間이므로 정원본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당말唐末에 있어서 역경의 최후를 장식한 것으로 육십화엄, 팔십화엄의 입법계품入法界品에 해당하며 이전에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상세하게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화엄경』에는 여러 가지 이역이 있으나 보통 화엄경이라 하면 『육십권화엄』, 『팔십권화엄』, 『사십권화엄』으로서 이것을 삼부화엄三部華

嚴이라 한다. 그런데 육십권화엄에는 지엄의 『수현기搜玄記』 5권, 현수賢首의 『탐현기探玄記』 20권이 있고, 팔십권화엄에는 징관澄觀의 『대소초大疏鈔』 80권이 있으며, 사십권화엄에는 징관淸涼의 『화엄경소華嚴經疏』 10권, 규봉종밀圭峯宗密의 『사십화엄경소초四十華嚴經疏鈔』 등 6권이 있어, 이 삼부화엄경을 연구하는 데에 지침이 되고 있다.

본경의 조직은 육십권본은 인삼천사人三天四³⁾칠처팔회七處八會 34품으로 지엄의 『수현기』와 현수의 『탐현기』는 이에 의하고, 팔십권본은 인삼천사의 칠처구회 39품으로 혜원의 『간정기刊定記』와 청량의 『대소연의초大疏演義鈔』가 이에 의하며 통현通玄장자의 『화엄합론華嚴合論』도 역시 이 『팔십화엄』에 의하나 십처십회十處十會 40품을 세우고 있다.

4. 십지十地

『화엄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서 말한 인삼천사 중 천궁사회天宮四會이다. 이 천궁사회에서 설한 내용은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 십지十地의 4품인데 전3[십주, 십행, 십회향]은 삼현三賢, 후1[십지]을 십성十聖이라 한다. 징관澄觀은 전3회[제3도리천궁회, 제4야마천궁회, 제5도솔천궁회]에서 해解[십주] 행行[십행] 원願[십회향]을 밝혀 현위賢位의 인행因行을 마치고 차회[제6타화자재천궁회]에서 지지를 얻어 진여眞如에 계합하므로 성위聖位의 과를 밝히게 된다. 전삼현前三賢은 교리를 설한 것이고 이 십지는 증도證道를 설한 것으로서 교敎는 증證의 인인이 되고 증證은 곧 전삼심前三心の 교敎를 증득하는 것이다.

이상 사품四品の 행법에서 그 기본이 되는 것은

3) 인삼천사人三天四 : 인삼삼은 상주上住에서 밝힌 제1보리장회와 제2, 제7, 제8회의 보광명전회普光明殿會와 제9서다원림회第九遊多園林會이다. 천사天四는 제3도리천궁회와 제4야마천궁회와 제5도솔천궁회와 제6자재천궁회이다.

십지이다. 이 십지품十地品の 설주說主는 금강장금剛藏 보살인데 보살대지혜광삼매에 들어가 설한 것으로 십지의 이름은 ① 환희지歡喜地 ② 이구지離垢地 ③ 발광지發光地 ④ 염혜지焰慧地 ⑤ 난승지難勝地 ⑥ 현전지現前地 ⑦ 원행지遠行地 ⑧ 부동지不動地 ⑨ 선혜지善慧地 ⑩ 법운지法雲地이다.

이 십지는 불지佛智를 생상하고 능히 주지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온갖 중생을 짊어지고 교화 이익케 하는 것이 마치 대지가 만물을 싣고 이를 운택, 이익하게 하는 것과 같으므로 지地라 이름한다. 이제 차례대로 십지十地에 대한 명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환희지歡喜地

처음으로 참다운 중도지中道智를 얻어 불성佛性의 이치를 보고 견혹見惑⁴⁾을 끊으며 능히 자리아타自利利他하여 진실한 희열이 가득찬 지위이다. 용수龍樹는 「선법미善法味를 얻어 마음이 환희하므로 환희지歡喜地라 한다」고 하였고, 천천天親은 「처음으로 무루지無漏地를 얻어 진리를 체현하는 성위聖位를 얻어 환희에 충만하므로 환희지라 한다」고 하였다.⁵⁾

이 환희지에 안주한 보살은 자리아타행自利利他行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 가지 서원을 세워 대승보살의 이상을 전시宣示하였다. 즉 십대원十大願이란, ① 공양원供養願 ② 수지원受持願 ③ 전법륜원轉法輪願 ④ 지중생행원知衆生行願 ⑤ 중생교화원衆生教化願 ⑥ 승사원承事願 ⑦ 정국토원淨國土願

⑧ 불리지원不離之願 ⑨ 이익행원利益行願 ⑩ 성보리원成佛提願 등이다. 이와 같은 열 가지 원을 비롯해서 무량한 대원을 세워 그 실천을 위하여 정진해 가는 것이 초지初地보살의 임무이다. 정각正覺은 오직 자기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를 정화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

(2) 이구지離垢地

또한 무구지無垢地라고도 한다. 수혹修惑⁶⁾을 끊고 범계犯界의 더러움에 제하여 몸을 깨끗하게 하는 지위地位를 말한다. 용수는 「십선도十善道를 행하여 제구諸垢(번뇌)를 여의므로 이구지離垢地라 이름한다」고 하였으니 불교의 도덕윤리를 호지護持하는 사실에 의해 살생 등 십악업구十惡業垢를 여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천천天親은 발기정發起淨과 자체정自體淨으로 나누어 그 계의 내용을 밝혔다.⁷⁾ 처음에 발기정이란, 제2지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정직심正直心 등 십심十心이 있음을 보였다. 다음에 자체정이란, 이른바 삼취정계三聚淨戒이다. 첫째는 삼율의계攝律儀戒이니 살생 등 십악업十惡業을 행하지 않음을 말한다. 둘째는 십선법계攝善法戒이니 불살생 등 십선업도十善業道⁸⁾를 닦는 것이다. 셋째는 삼중생계攝衆生戒이니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조련하는 십선업도十善業道는 인륜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도덕적 수행이다.⁹⁾

4) 견혹見惑 : 견번뇌見煩惱, 견장見障이라고도 함. 견도위見道位에서 사제四諦의 이치를 볼 때에 끊는 번뇌로서, 탐貪, 진瞋, 치癡, 만慢, 의疑, 신견身見, 변견邊見, 사견邪見, 견취견取見, 계금취견戒禁取見 등 10종이다. 삼계三界에서 각기 사제四諦를 관찰하여 끊는 번뇌는 각 제마다 각기 다르므로 모두 팔십팔사八十八使의 견혹이 된다.

5) 「국역일체경석경론부國譯一切經釋經論部」, 6, 8頁中 11行.

6) 수혹修惑 : 사혹思惑이라고도 함. 낱말 사물의 진상을 알지 못하므로 일어나는 번뇌. 정의精意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끊기는 쉽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를 알고 끊는다.

7) 「국역일체경석경론부國譯一切經釋經論部」, 6, 8頁下 22行.

8) 십선업도十善業道 : 십선도 또는 십선계라고도 한다.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어不妄語, 불양설不兩舌, 불악구不擘口, 불기어不綺語, 불탐욕不貪欲, 부진에不瞋恚, 불사견不邪見 등이니 십선十善의 행위는 좋은 곳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이다.

향기를 통해 본 화랑 - 화랑정신의 본질과 시대적 의미 - ②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학감

목 차

1. 들어가며
2. 鄉歌 속의 화랑
3. 아름다운 인격, 화랑 三善行
4. 화랑정신의 본질
5. 화랑정신의 시대적 의미
6. 나가며

【참고문헌】

3. 아름다운 인격, 화랑 三善行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윤리적 측면에서 바라본 화랑으로, 곧 인격에 관여한다. 화랑이라는 단체가 추구했던 가치의 문제는 무엇일까. 소속원 개개인의 존엄을 소외시키는 전체주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자신을 성장시켰을까. 전체 사회가 그들에게 매기는 평가와 자체적인 성취감은, 화랑도가 신라 사회의 정신적 기틀이었다는 여러 기록상의 정보와 삼국통일이라는 결과를 두고 볼 때 우선 긍정적이다. 우리는 그들을 직

접 경험하지 못했으나 전해지는 자료에 의해서 그들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느낌이 일치하는 대목은 바로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 화랑의 모습이다.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찌면 화랑이라는 인격적 존재는 현시대의 요구에 가장 부응하는 인간형일지도 모른다. 소박한 생각이지만, 인류에라는 보편성은 통시적 관점으로도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기 때문이다. 화랑 연구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이라는 너무도 단편적인 수식어에 사로잡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 가치와 지향을 미처 놓쳐버리는 경우인데, 그들이 수지했던 세속오계로만 화랑을 너무 얽어맨 나머지 그것을 수행했던 화랑과 낭도의 살아 있는 실체를 간과해버린다. 그들도 시작은 육체와 정신을 가진 번뇌하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과 자신을 절제하는 수행을 통해 전인적인 인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우선 진흥왕 시절 인재 발굴의 일환¹⁰⁾이었던 화랑이 통일 이후에는 평화공존 사회를 그 요건의 으뜸으로 삼았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화랑의 조직도 이에 걸맞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변화의 핵심적 뼈대는 좀더 거슬러 올라간다.¹¹⁾ '골품제'와 같은 신라의 신분제도가 낡은 차별적 적폐 현상을 반성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경과 존중'의 배려 속에서 인간 존엄을 공유한다는 점이 바로 그 중핵으로, 현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의미가 남다르다. 어찌 되었든, 이는 화랑 교육프로그램이 '道義'에서 출발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 ① 서로 도의로써 연마하고(相磨以道義),
- ② 서로 노래와 풍류로 즐기며(相悅以歌樂),
- ③ 산수를 찾아다니며 먼 곳에조차 이르지 않음이 없었다(遊娛山水 無遠不至).

이제는 그리 낯설지 않은 화랑정신의 이러한 세 가지 골격은 격변기 속의 신라 사회를 추스르는

데 상당한 동력이 되었다. 그 사람됨의 바르거나 바르지 못함을 알아채고[知其人邪正] 그중에서 좋은 사람을 가려내어 조정에 추천하였다[擇其善者 薦之於朝]는 기록¹²⁾으로 미루어 인재육성과 등용에 커다란 역할을 했음이 분명할 터이다.

위에서 제시한 화랑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수용된다. ① 이성적으로는 인생의 보편 가치로서의 '道義'를 실현하기 위해 지식과 실천능력을 증장시키고, ② 감성적으로는 '歌樂'을 통해 구성원 상호 간의 공동체 의식을 심화시키며, ③ 실천적으로는 국토 곳곳을 '遊娛'하며 자연과 하나된 인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애국적인 단체 활동을 전개한다. 험난한 역경을 이겨내며 각각 사람 됨됨이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우수한 인물을 발굴하는 일은 어쩌면 부수적일지도 모른다.

화랑을 전하는 여러 이야기 중에는 정의가 아니면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은 심지를 대표하는 實例가 있다. 『삼국사기』 열전에 전하는 검군劍君¹³⁾은 기근이 들어 자식까지 팔아먹은 형편에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죽어 임진된 화랑이다.¹⁴⁾ 그가 사랑궁의 사인으로 있는 동안, 다른 모든 사인들이 공모하여 궁전 창고의 곡식을 훔쳐서 나눠 가지곤 했는데, 그만이 홀로 받지 않았다. 모든 사인들이 이를 탓하자, 그는 "스스로 화랑의 무리로서 풍월의 마당

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진실로 의로운 일이 아니면 비록 천금의 이익이 있더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인들이 공모하여 그를 죽이려 하자 죽을 줄 알고 화랑 近郎에게 작별인사를 하였다. 근량이 "왜 관가에 말하지 않는가"라고 물으니, 검군은 "자기의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걸리게 하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근량이 "그러면 왜 도망가지 않는가"라고 물으니, 검군은 "저들이 잘못하고 나는 바르는데 내가 도망간다면 장부가 아니다"라고 하고 사인들에게로 가서 땀땀하게 죽었다는 것이다. '죽을 자리가 아닌데 죽었으니 이는 태산과 같이 중한 목숨을 새털보다 가볍게 여겼다'고 비평하는 견해도 있으나, 옳음과 옳지 않음을 바르게 가리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의 의지를 지켜나간 검군의 맑고 깨끗한 성격과 높은 품격은 '풍류의 마당에서 수행'하며 도의로 연마된 화랑의 절조를 짐작하게 한다.

화랑들은 인간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 부단히 연마하였으며 현실 생활에서 실천하였다. 서로 연마하고(相磨), 서로 즐기면서(相悅), 제아무리 먼 곳이라도 함께 이르고자 하는(無遠不至) 태도는 개인 간의 소통 능력과 불굴의 의지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고도로 교육받은 인간은 정서적으

10)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 37년: 春始奉源花初君臣病無以知人欲使類聚群遊以觀其行義然後舉而用之遂簡美女二人一曰南毛一曰俊貞聚徒二百餘人二女爭相媚俊貞 引南毛於師第強勸酒至醉曳而投司水以殺之後貞伏誅徒人失和罷散其後更取美貌男子粧飾之名花郎以奉之徒衆雲集 삼국사기에는 원화와 화랑에 대한 기록이 '진흥왕 37년春' 기사에 합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화랑의 설치를 '慶原花粟年...'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삼국사기의 기록이 진흥왕 37년에 원화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진흥왕 37년에 花郎을 설치한 것을 부연하는 설명으로 이해하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모순 없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즉 삼국사기의 기록이 화랑의 설치를 설명하는 과정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원화의 설치를 년월이 맞지 단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37년春' 기사에 같이 기록해서 화랑 설치에 대한 이해를 도운 것으로 판단된다.

11)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 37년: 金大問花郎世記曰賢佐忠臣從此而秀良將勇

12) 『삼국사기』에서 화랑에 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열전」 사다함전에 있다. 진흥왕이 화랑을 설치하기 이전에 화랑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후 여러 개의 화랑단체에서 인재를 뽑아 추천하면 왕이 임명하는 구조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최초의 국선이 薛原郎이다.

13) 『삼국사기』 「열전」 雖千金之利 不動心焉 時大日伊瀆之子 爲花郎近郎 故云爾 劍君出至近郎之門 舍人等密議不殺此人 心有漏言 遂召之 劍君知其謀殺 辭近郎曰 今日之後 不復相見 郎聞之 劍君不言 再三問之 乃畧言其由 郎曰 胡不言於有司 劍君曰 畏已死 使衆人入罪 情所不忍也 然則盡逃乎 曰彼曲我直 而反自逃 非丈夫也 遂往 諸舍人聞而密以藥置劍君 劍君知而強食 乃死 君子曰 劍君死非其所 可謂死於鴻毛者也

14) 『삼국사기』 권 48 「열전」 8

로도 상당한 수준의 인격을 갖추게 되었다. 과도한 자기주장이나 술책이 아니라 수행 도중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매사에 강제와 강요가 아니라 감동을 전하려 했다. 현대적 캐치프레이즈로 말하면 바로 '강요가 아니라 감동!'이라는 말이 되겠다. 화랑은 화랑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신라의 전체에 걸친 사안이었으므로, 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던져 준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윤리 정서적 차원을 성장시킨 바탕 역시 풍류에서 비롯된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 그 교리 해설의 근원은 「선사仙史」에 상세히 실려 있으니, 실은 유교 도교 불교를 포함한 것으로 '여러 생명들과 사귀어 화옹하는 것'이다. 집에 들어와서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뜻이고, 무위자연 상태에 처하며 말을 초월한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기본취지이며, 모든 악행을 하지 않고 모든 선행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석가의 가르침이다.¹⁵⁾

위에 인용한 최치원의 「鸞郎碑序」에 따르면, 화랑이라는 체계는 결코 단순하고 일회적인 기획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현묘한 도[玄妙之道]'와 '여러 생명들과 사귀어 화옹하는 것[接化群生]'을 일컫는 부분이 특히 그러한데, 교육 시스템으로 기능하던 相磨以道義, 相悅以歌樂, 遊娛山水 등의 세부

사항이 여기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 중 가장 후진적이고 나약한 국가였던 신라가 삼국 중 가장 오랜 기간 존속하며 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까닭도 이러한 교육시스템 덕분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그것은 삼국 간에 벌어지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굴욕적인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는 그들만의 생존 전략이었으며 사활을 건 투쟁으로 단련된 힘과 지혜였다. 다시 말해, 화랑은 연속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굳건히 자기 존엄을 선포하고 자기 방어권을 확보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참가자 모두에게 동등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우수한 인력들을 배출해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자신들을 생존 위협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으며 짧지 않은 기간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장기적인 안목과 본질 개선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한 결실이었다. 그뿐 아니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떠난 청소년기의 단체 생활¹⁶⁾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서적 결함을 매우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아름다운 인격을 성숙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9세기 중엽 아름다운 인격을 완성한 최고의 화랑이던 國仙 金膺廉(?-875)의 일화를 소개한다. 그는 겸손 겸소 관용의 美, 즉 '三善'의 미덕을 천명하였는데,¹⁷⁾ 관련된 내용은 「三國遺事」¹⁸⁾와 「三國史記」¹⁹⁾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두 역사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사이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 앞에 18세(「遺事」)/15세

15)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37년. 崔致遠鸞郎碑序曰國有玄妙之道曰風流設教之源(備詳仙史實乃包含三教接化群生。且加入則孝於家出則忠於國魯可寇之旨也。處無爲之事行不言之教周柱史之宗也。諸惡莫作諸善奉行竺乾太子化也)

16) 『三國志』 위서 동이전 한조에 '삼한에는 마을의 청소년공동체가 존재하였고 이들의 공동집회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신라에는 진한의 사로국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17) 안호상은 그 세 가지를 '겸손' '겸소' '관용'으로 요약하면서 모두를 포괄하여 三善 또는 '三善行-삼국사기', '三美行-삼국유사'이라고 칭했다. 안호상(1977), 『민족의 주체성과 화랑정』, 211쪽. 善, 즉 겸손, 겸소, 관용의 덕목이 지적되는 사상적 배경의 하나로서는 『道德經』(67장)에서의 이른바 '我有三寶實而持之一曰慈二曰儉三曰不敢爲天下先.'라는 구절이 주목되기도 한다.

(『史記』)의 김웅림을 불러서 물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다. “국토를 순행하며 배운 지가 여러 해인데 좋은 행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국선 김웅림은 2년째 遊娛山水를 하며 相磨以道義를 수련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제가 일찍이 세 사람을 보았는데 좋은 행실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임금은 자세히 듣기를 원했고 다음 대답이 이어진다. “하나는 높은 가문의 자제인데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여 스스로 앞서려고 하지 않고 아래에 처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집안에 재물이 많아서 의복을 사치스럽게 할 수 있는데도 항상 배움을 즐기는 것이며, 또 하나는 세력이 영화로운데도 일찍이 남들에게 그 세도를 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본 바가 이와 같습니다.” 이후 왕을 감동하게 한 김웅림은 부마가 되어 신라의 제48대 경문왕²⁰)으로 등극한다.

삼선행 정신(三美)은 세속오계와 더불어 화랑들의 신조로서 일종의 사회윤리이며 신라 사회의 질서를 이루던 도덕이다. 첫째는 남의 윗자리에 오를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 겸손한 미덕이요, 둘째는 세력이 있고 부자이면서 옷차림이 검소하게 생활하는 미덕이요, 셋째는 본래부터 귀하고 세력이 있으나 그 위세를 내세우지 않는 관용의 미덕이다. 얼핏 단순해 보이는, 그래서 더욱 가벼이 지나칠 수 있는 國仙 김웅림의 삼선행 정신에 대한 임금의 평가는 결국 그를 신라 제48대 군주로 등극하게 한다. 김웅림의 말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쏟은 현안왕이 그를 사위로 삼아 국권을 넘겨준다는 로망은 자칫 비현

실적으로 읽힐 수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삼선이야말로 국가를 경영하는 최고위층이 반드시 지녀야 할 윤리적 자세이며 가장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견인할 수 있는 인격의 상징이다. 사실 삼선행은 단순히 순간적인 처세에서 비롯된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삼선행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보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중시하는 인간 존중 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삼선행이 당시 화랑들의 이념으로 숭상되었다는 점은 그러므로 의미심장하다. 바로 보람 있는 인간 생활의 태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 젊은 청년들을 위한 건전한 사회교육의 지표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덕은 어려서부터 이루어진 신라인들의 독서력과 사유력, 그리고 실천력에서 응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전거를 『논어』와 『도덕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신라인들이 지향하던 이상적인 인간관과 사회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하고 예를 하면서도 공경하지 않으며, 초상에 임하면서 슬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써 그 사람을 관하겠는가.²¹⁾

나에게 세 가지 보배가 있으니 소중하게 그것을 간직하노라. 첫째는 자비스러움이요, 두 번째는 검소함이며, 세 번째는 감히 천하보다 먼저 하지 않는 것이다.²²⁾

18) 『三國遺事』 景文大王, 王諱廣廉 年十八爲國仙 至於弱冠 憲安大王召郎 宴於殿中 問曰 郎爲國仙 優遊四方 見何異事 郎曰 臣見有美行者三 王曰 請問其說 郎曰 有人爲人上者 而攝謙坐於人下 其一也 有人豪富 而衣儉易 其二也 有人本貴勢 而不用其威者 三也 王聞其言而知其賢 不覺墮淚而謂曰 朕有二女..

19) 『三國史記』 第十一, 『新羅本紀』 第十一, 憲安王, 三善行, 爲人上者 謙坐於人下 有富豪 而衣儉易 有本貴勢 而不用其威

20) 신라 제43대 회강왕의 손자이고 부친은 이찬 김계명(金啓明)이며 모친은 신무왕의 딸 공화부인이다. 현안왕의 사위로 경문왕이 되었으니 재위 기간은 861년부터 875년까지이다.

21) 『論語』, 「八佾」, 居上不寬 爲禮不敬 臨喪不哀 吾何以觀之哉

22) 『道德經』, (六七章), 我有三寶 寶而持之 一曰慈 二曰儉 三曰不敢爲天下先.

「論語」, 「八佾」	「道德經」, 六七章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하고 예를 하면서도 공경하지 않으며, 초상에 임하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써 그 사람을 관하겠는가? (居上不寬, 爲禮不敬, 臨喪不哀, 吾何以觀之哉)	나에게 세 가지 보배가 있으니 소중하게 그것을 간직하노라. 첫째는 자비스러움이며, 두 번째는 검소함이며, 세 번째는 감히 천하보다 먼저 하지 않는 것이다. (我有三寶 寶而持之 一曰慈 二曰儉 三曰不敢爲天下先.)
관용 · 검소 · 仁義	자비 · 검소 · 겸손

「논어」의 말씀은 관용 겸손 仁義로 드러나고, 「도덕경」은 자비 검소 겸손으로 정리된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간직해야 하는 기본 품성과 언행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구절은 이른바 三善行, 혹은 三美行을 이루는 골격이다. 善行과 美行이 외현될 때에는 단순히 착한 행동이라거나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현실적 언어로 표현되지만, 그 내면에는 아름다운 심성과 품격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相磨以道義, 相悅以歌樂, 遊娛山水의 수련 행위는 겸손 검소 관용의 정신을 닦기 위해 구조화된 일종의 교육시스템이었던 셈이다.

현인왕은 분명 愛民의 훌륭한 리더십을 김용령에게서 발견하였을 것이다. 역량을 갖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기쁨이 눈물이 되어 흘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인품을 처음 본다고' 높이 칭송하였을 것이다. 강요는 누구에게나 쉽지만 진정성이 녹아 있는 감동은 함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4. 화랑정신의 본질

화랑정신의 본질을 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하나는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라는 外緣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 종교적 차원으로서의 내적 정서이다. 한동안 화랑에 관해 선행된 연구는 주로 사적 자료를 토대로 정치 교육 사회 문화 쪽에 집중된 느낌이 강했으므로 여기서는 윤리적 종교적 차원으로서의 접근을 시도하도록 하겠다. 물론 이러한 작업 역시 결국은 화랑의 교육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전인교육을 위한 그것은 당시 신라 사회의 장기적인 기획으로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쳤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기록으로 전해오는 효종왕에 관한 이야기²³⁾는 화랑의 무리가 단지 남산에서 노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여인의 효성을 보고 함께 이를 도왔고, 이 사실이 또한 임금께 알려져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미담으로 인식된다. 그 시대의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고 할 수 있겠다. 훈훈한 화랑의 일화들은 비록 단편적이거나 그들이 단순히 무리 지어 다니며 노니는 것만을 일삼았던 것이 아니라 국토를 순례하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이웃을 관찰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봉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있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전설은, 화랑을 특히 군사 정치적 목적으로 양성된 무사 집단이라는 이미지에만 연결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환기시킨다. 무예를 닦으며 전술 훈련을 한 것은 맞지만, 오히려 정서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되려는 데 더 많은 투자와 심혈을 기울인 단

23) 「三國遺事」, 「孝善第九」, 貧女養母/孝宗即遊南山地石亭, 或云三花連, 門客呈馳, 有二客獨後, 即問其故, 曰, 芬皇寺之東里有女, 年二十左右, 抱盲母相號而哭, 問同里, 曰, 此女家貧, 乞食而反哺有年矣, 適歲荒, 倚門難以藉手, 贖贖他家, 得穀三十石, 奇置大家服役, 日暮米而來家, 炊餵半宿, 晨則歸役大家, 如是者數日矣, 母曰, 昔日之糠粃, 心和且平, 近日之香粳, 膈肝若刺, 而心未安, 何哉, 女言其實, 母痛哭, 女嘆己之但能口腹之養, 而失於色難也, 故相持而泣, 見此而遲留爾, 即聞之潸然, 送穀一百斛, 郎之二親亦送衣袴一襲, 郎之干徒, 召租一千石遺之, 事達辰聰, 侍眞聖王賜穀五百石, 并宅一廬, 遣卒徒衛其家, 以儆劫掠, 旌其坊爲孝養之里, 後捨其家爲寺, 名兩尊寺.

체였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지금까지 거론했던 화랑의 모습과 활동을 복기해 본다면 더욱 뚜렷해진다. 그들의 주된 자기표현 방법은 '항가'였으며, 그들이 수련하던 근간은 '도의'를 바탕으로 한 삼선행이었다. 이와 같은 화랑의 요건들을 교육의 이상적인 방향으로 비유하자면 진 선 미의 양상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항가를 짓고 향가를 노래하는 정서함양의 정신을 '미'라고 했을 때 도의를 바탕으로 한 겸손 겸소 관용의 정신을 윤리를 규명하는 '선'으로 연결 짓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에 이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화랑정신의 본질은 자연스럽게 진리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대승보살도의眞에 배대시킬 수 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전인교육의 형태는 六藝를 배우는 것이었다. 이는 藝, 樂, 射, 御, 書, 數를 가리킨다. 여기서 '예'라 함은 도덕적 사회적 발달을 뜻하며, '약'이란 정서적인 발달을 말하는 것이요, '사'와 '어'는 신체적인 발달을, '서'와 '수'는 지적인 발달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자가 그 나이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그때부터 학문 즉 육예를 배우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공자는 그중에서도 '예'와 '약'과 '사'와 '서'를 공부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였다고 한다. 화랑정신은 이상적인 교육 형태를 만들어 유능한 국민이자 지도자를 육성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선량하고 아름다운 시민을 기르려는 데 있었으므로 현대교육이 추구하는 전인교육의 목적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²⁴⁾

화랑정신의 본질을 논하며 원광법사圓光法師²⁵⁾의 기원을 배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원광의 존재가 던지는 불교 사상사적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원광은 중국 불교계에서 연구되고 있던 아함 성실 열반 섭론학 등의 당시 사상을 섭렵하고 귀국한 후 1년에 2차례씩 대승경전을 강설하며 교화에 힘썼다. 이는 중국 불교계의 연구 성과가 본격적으로 신라 불교계에 유입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佛性論을 언급한 『如來藏經』²⁶⁾에 대해 신라인으로는 최초로 저술을 남겼는데, 이는 신라인들의 전통적인 인간관에 신선한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 그가 유학할 때 중국불교계에 처음 등장한 점찰법을 수용하여 신라불교계에 소개한 것으로, 귀국 후 五岬寺 중 嘉悉寺에서 占察法會를 실시했고 참회법과 보살계를 주었다. 점찰법은 점을 친다는 점에서는 종래의 신앙과 동일하지만, 그 사상적 배경이 악행을 막고 선행을 권장하는 불교의 授戒儀法에 있으므로, 이미 불교적으로 윤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국가와 불교와의 (世間과 出世間과의) 조화 문제이다. 그는 승려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외교문서의 작성과 정치적 자문과 같은 세속적 임무도 요청받았다. 613년에는 수나라 사신 王世儼가 왔을 때 皇龍寺에서 호국적인 성격이 강한 百高座會를 주관 개척하였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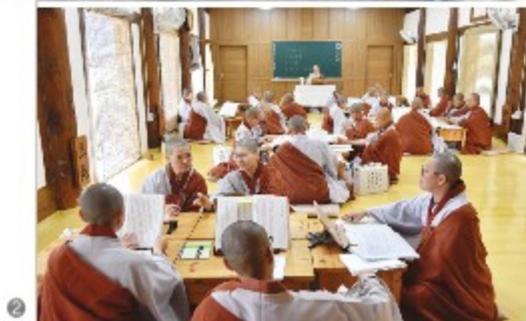
24) 김진숙, 「화랑정신과 교수법」, 『우리정신문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상)』, p. 16.

25) 원광의 전기가 실린 문헌 자료는 『삼국유사』, 당 『속고승전』, 『해동고승전』 등이 있다.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 조에 인용된 『수이전』에서는 '설씨'라 하였고, 『속고승전』 권13권 「신라황룡사석원광전」에서는 '박씨'로, 『해동고승전』에서는 '설씨 혹은 박씨'라고 밝히고 있다. 『수이전』과 『해동고승전』, 『삼국사기』에 공통적으로 중국유학 출발 연도가 589년으로, 귀국 연도는 11년 후인 600년으로 동일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속고승전』에서 말하는 유학출발 나이인 25세를 대입하여 생년연대를 추정해 보면 564년생, 귀국시 나이는 36세이나 출생과 열반 연도에 관해서 異說이 많다.

26) 원광의 『如來藏經疏』는 逸失되어 전하지 않는다.



1



2



3



4

- 1 모여라 화엄반~ 신나는 야외수업! 아호~!
- 2 사교반 스님들의 조별 토론 시간~!
- 3 풍성한 먹거리를 책임져주는 원두반~!
- 4 정다운 얼굴, 대학원생 스님들
- 5 만세~! 우리는 치문, 대 자유인



5

이열치열以熱治熱, 운문인의 여름

편집부

- ⑥ 치문반 자삭~! 치문반 스님들의 환상의 손맛
- ⑦ 사집반과 치문반이 힘을 합쳐 감자 캐는 날
- ⑧ 대중올력 중 간식 시간!
맛있는 자두를 수확 하는 중~!
- ⑨ 화엄반과 치문반이 뭉쳤다. 매실 따기!



『금강경金剛經』 사구계四句偈 고찰

도욱 / 대교과

목차

1. 시작하는 말
2. 찬요纂要와 송頌에서 본 사구계四句偈 단편
3. 『금강경』과 공空 사상思想
4. 끝내는 말

‘마음 속의 분별, 집착, 번뇌 등을 부숴버려 깨달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지혜의 경’라는 뜻이다. 대반야경 600부 중에서 577권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약 300송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300송 반야경’이라고도 한다. 성립 시기는 대략 기원전 1세기~2세기경으로 추정되고 대승불교의 공空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공’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보살행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면서도 ‘보리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석가모니와 그의 제자 1,250명만 등장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대승불교 경전 중에서도 초기에 성립된 경전으로 보인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다보면 ‘한 사구계四句偈만이라도 외워 지니고, 남을 위해 알려주면爲他人說) 그 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사구계는 부처님의 공덕이나 교리를 찬탄 요약한 것으로 경속의 대의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금강경』의 주요 사상은 ‘공’이다. 이러한 공사상은 연기사상의 내용에 입각해서 정립된 것으로 모든 존재를 인식함에 있어서 존재 자체의 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인연이 화합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가유假有’를 인정하는 진리관이다. 공이라 할 때에 공에 치우치지 않고 가유를 전제한 공이어야 하고, ‘있대有’고 말할 때에도 ‘있다’는 사실에만 치우치지 말고 공을 전제한 가유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방법을 곧 중도中道적인 견해라고 한다. 이에 사구계를 중심으로 『금강경』의 중요 사상인 공空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작하는 말

『금강경』은 반야부 경전에 속하는 경으로서 구체적인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구마라집譯)’ 또는 ‘능단금강반야바라밀경(현장譯)’이라고 하며

2. 찬요纂要와 송頌에서 본 사구계四句偈 단편

제가諸家의 견해가 많으나 『금강경』 사구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많은 주석 가운데 규봉종밀圭峯宗密의 〈찬요纂要〉와 야보도천治父道川の

〈송頌〉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오가五家の 견해를 단편적으로 요약하였다.

(1) 제1구 [제 5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무릇 있는 바의 상相이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諸相과 상 아님非相¹⁾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제 1 사구계는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송이다. 먼저 규봉은 '범소유상 개시허망'을 통하여 불신佛身은 상相이 아님을 논증한다. '약견제상비상'이란, 색色을 떠나서 공空을 관하는 허물을 막기 위하여, 제상諸相이 허망하다는 말을 듣고 따로 상이 없는[無相] 불신佛身을 구하려 하는 것을 염려하여 '32상의 종호를 갖춘 제상諸相뿐만 아니라 비상非相까지 다 볼 때, 곧 진정한 여래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육조는 '여래의 법신을 나타내고자 모든 허망한 상相 속에서 제법실상의 법신이 있음'을 보라고 한다. 그리고 야부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가?'라고 노래한다. 이에 대하여 설의에서 함하는 '유有에 집착하고 무無에 집착하는 것은 샷된 견해邪見를 이루는 것이니 유有無를 다 떠나야 한 맛一味¹⁾이 나타난다'고 하여 대적광토의 법신을 일미一味로서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 1 사구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결정적 신의 한 수는 종경의 노래이다. '보신과 화신은 진신眞身이 아니고 마침내 허망한 인연이요, 법신만이 청정해서 가없이 넓도다. 천강千江의 물에 천강의 달이 비쳐지고 만리萬里에 구름

없으니 만리가 하늘일 뿐이로다.' 이는 형상이 있는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은 모두 허망하지만, 법신法身을 근본으로 다시 인연을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는 제법실상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법신은 진실이며, 그 자체는 청정하여 텅 비었으며, 비었기 때문에 광대무변하다고 한 것이다.

(2) 제2구 [제 10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

諸菩薩摩訶薩 應如是生清淨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 而生其心

모든 보살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청정심이란 취함이 없고 집착이 없는 지혜로운 마음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식의 경계는 육근의 대상처인 육경을 상대하여 육식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식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머무름 없는 마음이란 상相을 일으키지 않는 여여함을 말하는 것이다. 규봉은 '이생기심이란 곧 바른 지혜正智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다운 마음眞心이니, 이 마음조차 무심無心하면 곧 공견空見과 같다'고 한다. 공견이란 근식根識이 청정해서 허공처럼 텅 빈 것 같으나, 그 가운데 확연하고 묘한 작용이 있는 진공眞空의 마음이 상속되는 것이다. 일어나는 마음이 본래 없는 것임을 다시 알아차렸을 때가 바로 정지正智와 진심眞心の 작용으로 부처의 세계가 현현된 것이다. 즉 응무소주의 마음이란 아

1) 전통적으로 강가講家에서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여래를 볼 수 있다.'고 새겨왔으나 이 구절에 대한 제가의 논의는 분분하다. 조계종 표준본 연구에 입각하면 '제상諸相'을 32상을 갖춘 신체적 특징인 응화신으로 보았다. 이러한 제상諸相뿐만 아니라 상을 떠난 비상非相 이신 법신佛身까지 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여래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내용으로 관점을 확정시켰을 때 <법신비상분法身非相分>이나 <응화비진분應化非眞分>의 요점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맥락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궁극적으로 무무법의 완성지이신 법신으로의 각각 자기완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운하응주'이자 '운하향복기실'의 실천 요체가 되는 것이다.

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없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아부는 진여자성의 청정한 마음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요한 밤 산당山堂에 말없이 앉았으니 적적요요함이 본래 그대로이다. 무슨 일로 가을바람이 나무숲을 흔들어 한 소리 찬 기러기가 장천을 울리는가”

(3) 제3구 [제 26 법신비상분法身非相分]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만약 색신色身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

규봉은 위역[보리유지]에서 ‘저 여래의 묘체妙體는 곧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니, 법체法體는 가히 볼 수 없고 저 식識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 미륵의 계승에서 말하기를 ‘오직 색으로 보고 소리로 들으려 하면 이 사람은 부처를 알지 못하니, 진여법신은 식識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무착은 ‘저 법신은 진여의 상相인 까닭에 언설言說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증득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경계’ 라고 한다. 아부는 “가령 소리와 색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이 또한 여래 있음을 보지 못하니, 또 말하라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가. 불심不審 불심不審이로다.” 라고 한다. 이 구절에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불심不審’이다. 단순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미 여래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중생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즉 형상과 음성으로 부처를 본다고 하고 부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형상과 음성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의 법체를 볼 수 없다. 무명에서 출발한 인식으로는 ‘실상의 모습’을 바로 알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적 알음알이는 ‘법의 실상’이 아닌 무지無智의 산물일 뿐이다. 아부의 말대로 한 겹의 눈 위에 한

겹의 서리[一重雪上一重霜]가 내린 격이다.

(4) 제4구 [제 32 응화비진분應化非眞分]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일체의 유위법은 꿈, 환,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규봉은 유위법을 해석하는데 세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는 무착과 천천의 두 가지 논을 근거로 위역본과 현장의 번역에 따라 “일체 유위법은 별, 눈병, 등불, 환상, 이슬, 거품, 꿈, 번개, 구름과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하라”는 9가지의 비유로 환과 같은 세상을 바르게 관하여 인무아와 범무아를 통달하라고 설파한다. 두 번째는 경과 논에 부처님께서 ‘일체법은 공空하다’고 설하신 것을 잡아 이렇게 되묻는다. ‘모든 것이 실다음이 없다면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을까?’ 연기는 공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니 변화가 실체 없는 줄 알지만 변화하기 때문에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음을 꼬집는다. 세 번째는 구마라집 진역본의 6가지 비유로도 공과 무상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고 회통하면서, 꿈·환상·물거품·그림자는 공空的 이치를 비유한 것이고, 이슬·번개는 무상無常에 대한 설명으로 정리한다. 아부는 “배를 움직이는 일이 모두 노 젓는 사람에게 있음이로다. 물 속의 달을 잡으려 함이요 거울 속의 얼굴을 찾으려 함이로다. 배에다 칼 잃은 자리를 새겨 놓음이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격이로다. 허공의 꽃이요, 햇빛의 아리랑이요, 꿈이요, 환상이요, 물에 뜬 거품이로다. 붓 끝에 한 사구개가 있음이요, 쉬고 싶으면 편히 쉬노라니 대중가요, 막걸리와 시골의 즐거움이 풍류가 있음이로다.”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려지고 마음에 잡히는 모든 유위법은 잠시 형태를 취할 뿐이지 찰나 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순간이고, 무상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상

相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강경』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상相을 거뒀을 때 본래 갖추고 있던 자비와 지혜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금강경』과 공공 사상思想

『금강경』은 보리심과 공성을 중심으로 설하신 경전이다. 또 사구계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무아無我와 공성空性에 대한 내용이다. 공이란 삼라만상의 연기적 성품으로 불성, 또는 진여라고 불리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삼라만상 속 우리가 접하는 색성향미촉법의 실상도 공이며 공 또한 연기에 의한 것이므로 부처 또한 실체가 없는 공성으로 관해야 한다. 이러한 공사상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사상에 근거하여 정립된다. 연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 생기生起하는 것으로 모든 사물의 실체성이 부정되므로 무아無我이고, 결국 무아란 일체 사물이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자성을 가지지 않음(無自性)을 의미하므로 공사상의 내용과 직결된다. 또한 용수는 중도中道 사상을 통해 공사상을 구체화한다. 특히 즉비卽非 논리를 통해서 일체제법이 고정적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관觀하는 공사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금강경』의 사구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허망한 것이고, 모든 법이 공하여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을 살펴보았다.

4. 끝내는 말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반야부 경전에 속하는 경전으로서 대승불교의 반야사상과 더불어 중국의 선사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이다. 또한 한국에서 일용경전으로서 중요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조계종 승려의 소의경전으로 한국의 불교사상계에 끼친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금강

경』의 중심 사상은 공사상으로 대변되며, 공은 붓다가 깨친 내용인 연기 사상에 입각해서 정립된다. 연기의 진리에 의하면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인연을 따라 사라져간다. 대승불교의 공도 또한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고정 불변한 실체가 없음을 천명한다. 동시에 공은 현실적으로는 인연이 화합된 존재를 인정하는 진리관이다. 따라서 공사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를 부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가유假有를 인정하므로 이원적 대립을 극복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의 사상은 연기의 이념을 드러내는 중도의 사상으로서 단순한 절충주의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대립개념을 초월하는 사상이며, 동시에 실천적으로 대립된 입장의 어느 한 편만을 고집하지도 않는 태도이다. 또한 『금강경』의 공사상은 보살 정신을 통해 모든 생명은 타자와의 연기적 의존관계 위에서 성립되며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이고 이념적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서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를 깨우쳐 주고 있다. 본 논고는 금강경 사구계를 텍스트로 오가해의 뛰어난 종장들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언을 살펴 보았다. 사상四相이 없는 법신과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반야바라밀, 그리고 유위법의 실체에 속지 않는 대자유인을 성취할 수 있는 자량이 생겼으니 한바탕 씨름해보리라. ☸

〈참고 문헌〉

- 무비(2010), 『무비스님 新 금강경 강의』, 불광출판사
- 학산 대원(2018), 『금강경오가해 강설』, 운주사
- 김정옥(2012), 『금강경주해 의 선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련(2001), 『금강경에 나타난 공사상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태식(2014), 『금강경오가해 에 나타나는 반야논리 연구』,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락(2018), 『금강경의 보살사상과 수행론』,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의 사랑 운문사

서우 / 사미니과

사미니계를 받고, 매일 달력을 보며 기다리던 입학일.

현실은 내 속도 모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입학 날짜가 미뤄지면서 싸두었던 짐은 계절이 바뀔때 두 번을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1년처럼 느껴지던 두 달이 지나고, 입학 전날에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적이다가, 다음날 드디어 회색 바랑을 어깨에 메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운문사에 발을 들일 때에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탈문 안으로 발을 들이자, 행자 생활을 했을 때와는 운문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거의 1년 동안 행자 생활을 하며 4계절이 지나고 여러 행사를 치르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 등 이런저런 모습의 운문사를 봐왔었는데, 영문을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달라진 듯한 기분에 운문사가 낯선 기분도 들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지나서 청풍료에 짐을 풀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상반스님들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며, 이곳에 있는 스스로가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대웅보전에서 사미니로서 부처님께 올리는 첫 예불.
대중과 함께하는 예불과 어른 스님들께 올리는 인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진짜 운문사의 가족이 되었구나.’
눈물이 눈가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그렇게 짧게 끝나고 정신없는 일상이 시
작 되었습니다.

도반들의 범명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익혀야 할 것들, 외
워야 할 것들로 인하여 모두 덩치만 큰 초등학생이 된 듯했
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멘트를 해야 했고, 한 순간도 정
신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흐트러진 정신 줄을 잡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멍한 눈을
비비곤 했습니다.

‘모두가 공부구나. 걸음하나, 행동하나, 말 한마디, 생
각조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생활에 임해야 하는구나.’

입학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나를 내려놓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면 이 모든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조금
은 알 듯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들은 상반 스님들의 관심
과 사랑이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외우고 배워야 할 것이 주머니 속, 수첩 안에 가
득하지만 즐겁게 임하려 합니다.

운문사는 매일 봐도 새롭습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단
아하고, 여범해 보입니다.

금당과 청풍료, 전각들, 아름다운 꽃과 과일이 풍족하게
열리는 나무들, 오백년이 넘은 은행나무, 유명한 처진 소나
무, 하늘과 산, 그리고 스님들까지. 매일 봐도 질리지 않고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운문사의 가족이 된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곳에 오게 된 것을 부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ॐ





포교가 가장 큰 불사

23회 졸업생
일지 스님 탐방기

지엄 / 대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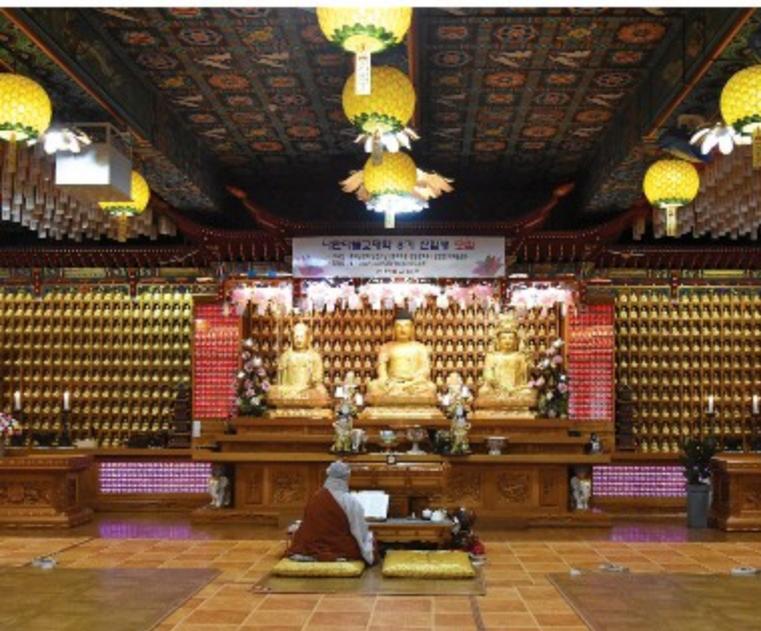
선배스님을 뵈러 가는 길. 인천불교회관을 향하여 광명행 열차에 올랐다. 머리를 갇고 강원에서의 단체 행사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도반과 단 둘이 함께하는 원행길이다. 마치 여행을 가는 듯 마음이 설레었다. 도착 후 도량을 살펴본 뒤, 선배스님과 다실에 마주 앉았다. 그리고 포교를 원력으로 삼은 후배들을 위한 선배님의 경험이 담긴 솔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포교의 시작점

저는 사실 강원에 다닐 적에 말도 잘 못했고, 포교를 할 만큼 활동적인 사람도 아니어서 감히 엄두도 못 냈어요. 오직 참선을 하는 선승이 되려고 했고,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졸업 후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알게 된 도반에게서 인천 능인사 주지소임을 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3년 동안 주지소임을 살고, 그러다 또 인연이 마하연 포교원이라는 포교당으로 이어져서 7년 동안 포교원을 맡게 되었어요. 당시 전前 소임자가 하고 있던 불교대학을 이어서 하는 와중에 '어린이 포교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어린이 범회를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청소년, 어린이들이 절에 오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때가 제 포교의 시작점입니다.





불교 불모지에서 중심지로

인천은 제가 부임할 당시만 해도 불교 불모지였어요. 그래서 불자들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장소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건물은 이곳 신도시의 초창기에 생긴 건물이에요. 송도 신도시 이전에는 여기가 신도시였고 여기에 터미널, 시청 등 중요한 시설이 다 있었죠. 그야말로 인천의 요지에 불교회관이 생기게 된 거예요.

불교문화회관은 1개 층만 인천불교연합회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요사채와 법당으로 총 3개 층으로 운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새 건물을 지을 때 포교를 위한 장소도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4층으로 짓느라 불사의 완공시기가 많이 늦춰졌지요. 그렇게 장소가 생겼으니 다도나 합창, 불교대학 등 기본적인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배우고자 왔던 인연들이 신도가 되면서 다시 또 이곳 단체에 소속되어서 포교를 돕는 힘으로 보태져왔어요. 그 이후에는 청소년 문화원 전용 건물을 마련해서 포교에 쓰여질 장소를 더 확보할 수 있었어요.

언제나 절을 지키는 스님

저는 큰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자신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을 지키고 밖에 잘 나가지 않았어요. 불교대학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개강했죠. 장소도 여기가 접근성이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절을 언제나 지키는 스님이 있다' 라고 인식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도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자발적인 실행단체

남들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든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현재 실행단체는 '다도회, 합창단, 풍물단, 지장회, 관음회, 붓다봉사회, 거사회, 포교사, 청소년회, 어린이회'로, 10개 정도 있습니다. 각 단체 별로 회장이 모여서 인천불교회관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따로 활동하고 행사를 앞두고 모두 모이는데, 예를 들어 초재는 관음회, 2재는 풍물단 이렇게 각 단체가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처음에 필요에 의해 단체를 만드는 것은 제가 관여했지만 어느 정도 단체가 이루어지면, 그 뒤는 신도님들의 힘으로 각 단체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어요. 저는 운영 비나 강사님 비용만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각 단체의 신도운영위원회 회원도 2년 마다 교체가 되니까 신도들이 실제로 자기가 속한 단체의 총무나 회장직을 한 번씩 맡으면서 절의 운영에 참여하면서 참여도가 높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매월 초하루 법회 후 2시에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각 단체의 회장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단체별로 회의할 안건이 있으면 가져오기도 하고,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단체별로 소임을 나누니까 책임감과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죠. 단체가 스스로 잘 운영되면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요. 그러니 단체가 꾸준히 잘 운영되게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쉽고 즐거운 불교

저는 어려운 불교보다는 부처님 말씀이 좋고, 편하고, 쉬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도법사스님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보던 것을 기억하고 '불교도 즐거운 법회를 해야 한다'고 해서 단타도 가르치고, 음악 프로그램도 하고 공연단도 만들었어요. 예불도 큰 화면을 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를 한 거죠. 원래 '어린이나 청소년이 무엇을 즐거워할까' 고민 없이 그냥 통상적인 법회를 했는데, 현재의 법사스님이 오고 나서 대상의 나이나 학년에 따라 법회를 분류하고 특화 프로그램도 기획했어요. 해외불교 수련도 있고 그런 특화프로그램 덕분에 청소년 25명 가량이 모여서 법회에 잘 참여하고 있어요. 또 어린이·청소년 중에 선정해서 매달 장학금도 주고, 종단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찰에서 지원금을 보태서 수련회에 보내는 거예요. 스님들이 바뀌고 프로그램도 바뀌고, 사찰에서 잘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꾸준히 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인천에 청소년 법회가 꾸준히 이어지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서, 더욱 더 청소년·어린이 법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은 중·고등학생이 법회 올 때 차비를 만원씩 줘요. 사정 상 원래 아이들을 데리러 가던 차량 운행을 폐지하고 그 돈으로 차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전철이나 버스를 주는 거니까, 부담 없이 오는 것도 있어요.

대학생 포교의 아쉬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중·고등학교 12년을 법회에 다니던 학생이 대학교 진학 후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대학을 가도 꼭 나오겠다고 다짐했던 아이들이었는데, 부처님의 종자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막상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약칭 : 대불련) 동아리에 가입하려 해도 대부분 학교에 동아리가 없어졌다고 해요.

학교에서 모임을 가지지 못하니까 절에 와야 하는데 대학생 법회하는 곳을 찾는 것도 힘든거예요. 대불련이 대학생 불자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지는 추세여서 나도 고민이 대학생 포교예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면서 불법에 멀어진 아이들,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다시 만나게 해야겠다.' 하고 마음먹고 군 법당을 지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이나 군대에서 도움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어요.

군 법당에 지원함으로 인해서 정말 큰 포교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군에서 접한 불교를 제대 후에 다시 찾게끔 하고, 같이 봉사하는 신도님들도 군 포교 덕분에 신나게 신심내며 같이 할 수 있어요.



선배로서 한마디

수행이 바탕이 되어야 포교를 할 수 있어요. 지식도 있어야 하겠지만, 스님으로서의 인격체를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지식은 이미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알음알이 지식만 알아서는 절대 포교를 잘 할 수 없어요.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 정말 영리하거든요. '스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몸으로 체득해서 잘 실천하는가'가 중요해요. 스님의 본분사를 잘 지키면 인정받게 되고,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으로서의 길을 가다가 무언가 잘 안될 때는 선배스님들이나 은사스님에게 꼭 의논을 해서 좋은 결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좋은 길, 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수행하며 잘 삽시다. ^^ ☸

좋은 불교 문학 작품은 하나의 경전이다

신이산 / 소설가



I. 불교와 한국 문학

불교는 이 땅에 들어온 삼국 시대부터 한국 문학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현전하는 향가 25수가 대부분 불교 신앙을 노래한 것임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고려 시대 균여 대사가 지은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불교의 가르침을 백성에게 펼치기 위한 노래이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불교 문학은 많이 위축되었다. 시보다 소설에 있어서 특히 그러한데, 이는 역량 있는 작가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사실 불교 문학의 위축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개화 이후 전통 사상과 종교를 배척하고 서구 사상과 종교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풍조가 심화되어 온 탓이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환경 탓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서양의 「신곡」, 「실낙원」, 「파우스트」 같은 작품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불교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오늘날 사회적 분위기이다.

불교 문학이라면 불교의 세계관과 사상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상업주의에 편승하여 스님이나 절집 이야기를 흥미 위주로 다룬 대중 소설이 불교 문학이란 이름으로 행세하기도 한다. 저급한 소설은 그것을 쓰는 이의 양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날 불교 자체의 위상 저하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명성 스님께서서 <법계문학상>을 제정하신 것은 불자와 불교 문학을 하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불교 문학의 융성과 문서 포교를 위한 스님의 큰 뜻은 길이 빛날 것이다.

II. 불교 문학의 장르별 특성

불교 문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넓은 의미의 불교 문학은 경전 번역물에서부터 신행담이나 찬불가 가사까지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교의 세계관과 사상을 수용한 창작 문학'이라고 정의한다.

불교의 세계관과 사상이 문학의 장르에 따라 어떻게 다양하게 구현되는지 시, 소설, 동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는 비유와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불교 사상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림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연 먼 젊음의 뒷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전문



이 시의 주제는 고뇌와 시련을 거쳐 도달한 생의 원숙한 아름다움이다. 국화 한 송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생명의 신비와 꽃이 피기까지의 과정을 불교적 인과론을 바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시인은 '한 송이의 국화꽃'에 '소쩍새', '천둥', '무서리' 등의 인연과 기다림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긴밀한 인연을 맺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시는 불교 사상을 길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시적 성취를 획득하여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

소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시보다 구체적, 직접적으로 불교 사상을 드러낸다. 불교 소설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남지심의 「우담바라」를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30여 년 전인 1990년대에 6백만 부나 팔린 밀리언셀러였기에 중장년층에서 이 소설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 작품은 「도다가의 종」, 「먼 비구니길」, 「마니주를 찾아서」, 「황금 전당」의 4권으로 이루어진 대하소설이다. 작가의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구도 정신이 전편에 녹아 있어서 독자는 소설을 읽는 동안 자연스럽게 불교의 감화를 받게 된다. 「우담바라」는 경이적인 관매 부수뿐만 아니라 소설을 읽고 출가한 사람이 십여 명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십여 명

이 출가할 것인가. 불교 소설 한 편의 영향력이 참으로 큼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불교 동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채봉의 「오세암」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가슴에도 동심의 세계를 선물했던 수작이다. 이 동화는 오세암五歲庵 암자에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다섯 살짜리 길손이와 앞 못 보는 누이 감이는 우연히 만난 설정 스님과 절에서 지낸다. 스님은 장난꾸러기 길손이를 설악산 마등령 중턱에 있는 관음암으로 데리고 간다. 길손이는 골방의 벽면에 그려진 보살상을 발견하고 '엄마'라고 부른다. 인자한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마음 속에 그리던 엄마같이 느껴진 것이다. 어느 날 스님은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면서, 혼자 있기를 무서워하는 길손이에게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라고 달랜다. 스님이 마을로 간 사이 폭설이 내리고 스님은 산길을 오르다 크게 다친다. 스님과 감이는 폭설에 발이 묶여 예를 태우다 50여 일 만에야 관음암에 도착한다. 암자에서 목탁 소리와 함께 관세음보살을 외는 길손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놀란 그들에게 길손이 말한다. "엄마가 오셨어요. 배가 고프다 하면 젖을 주고 나랑 함께 놀아 주었어요."라고. 스님들은 성불한 길손이를 그러 암자 이름을 오세암으로 바꾼다.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좋은 불교 문학 작품은 장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에게 감화를 준다. 특히 불교 동화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포교가 중요한 오늘날, 어떤 불교 프로그램보다 효과적이다. 그런 면에서 <법계문학상>의 응모 분야를 불교 소설과 불교 동화로 한 것은 탁월한 결정이라 하겠다.

III. 불교 문학의 나아갈 길

앞에서 불교 문학을 '불교의 세계관과 사상을 수용한 창작 문학'이라고 했는데, 그 토대를 이루는 것은 대승불교 사상이 될 것이다. 대승불교 사상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위로는 부처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上求菩提 下化衆生]'는 보살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인간상의 제시야말로 불교 문학의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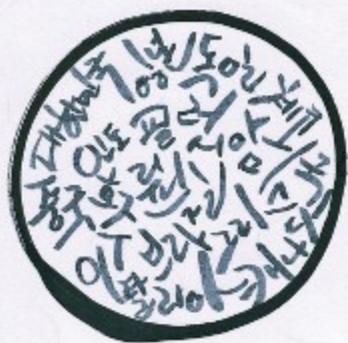
불교와 문학이 합일되는 높은 수준의 불교 문학 작품은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하며 동시에 문서 포교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할 것이다. 좋은 불교 문학 작품은 하나의 경전이 될 수 있다. ☺



신아산

본명 신중철(慎重喆)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 및 (주)두산 부사장을 역임했다. 2013년에 <불교문예> 신인상을, 2016년에 장편 소설 「문다리카」로 제1회 법계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2020년에 국군포로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 「기다리는 사람들」을 출간했다.



世界一花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를 이겨내듯
 나라나 다
 분별없이

꽃 한송이 피우는 일 

글·그림 지안 / 대학교과



사리암 노을

나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 코로나19 속 사리암에서 -

현밀 / 사진과

코로나19는 21세기에 겪은 재난 중 치사율은 낮지만 역대 바이러스 중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이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¹⁾을 선포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급증하는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우리를 더 절망적으로 만들며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경제 악화 등 고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편견과 배척, 이기심으로 이 재난이 누구의 탓이며,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진다. 코로나19는 우울증, 지역감정, 인종차별 등 우리의 마음도 병들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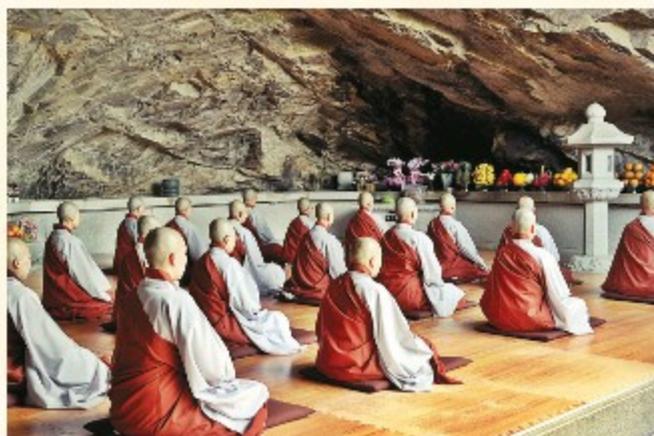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우리 일상은 어떤가? 이곳 사리암은 나반존자님의 영험함으로 유명한 기도도량이다. 새벽부터 나반존자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가 시작된다. 사리암은 매일 법당이나 도량 내 곳곳마다 신도님들이 기도를 하며 북적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사리암은 조용하다.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종무소에 따르릉 전화 소리만 울린다.

“사리암에 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문의전화이다. 기도가 간절한 신도님의 울컥한 목소리, 버스가 중단이 되어서 사리암에 오고 싶어도 갈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목소리, 기도를 자주 오시던 신도님도 집에만 있어 답답하다는 북소리,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근심 가득한 목소리 등 전화기 너머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의 일상이 사라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원성취를 하신 신도님들의 감사 기도를 통해 나반존자님의 영험함과 자비심을 실감하며 종무소 스님들도 모두 한마음을 모아 나반존자님께 코로나19 소멸을 발원하는 만배 기도를 시작했다. 종무소를 마감한 후 하루에 500배 씩 법당에서 부처님 명호를 한 분씩 부르며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모두 평안하기를 발원하면서 절한다. 기



나반존자님이 계신 곳



입정사당

1) 팬데믹(Pandemic) :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 경보단계를 1~6단계까지 나누는데, 팬데믹은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한다.



사리암 천태각과 보름달

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답답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치유한다.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일상이 아닌 우리의 일상을 이어가며 살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기도 한 후 벤치에 앉아 사리암의 밤 하늘을 바라보며 수 없이 많은 별들은 빛나고 시원한 바람이 마음을 달랜다. 이렇게 바라만보고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 행복감은 대체 무엇일까? 놓쳐버린 우리의 일상을 다시 돌아보고 환기하면서 이전의 일상도 지금의 이 순간도 소중하고 행복함을 배운다.

사리암에서 기억에 남는 일 중에서 노보살님의 축원이 가슴을 따뜻하게 한 일이 있었다. 씩씩하고 힘찬 목소리로 사리암 내 스님들의 안부를 묻고, “나라가 안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며 꼭 코로나19가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를 접수하셨다. 대부분 기도접수는 자신의 앞으로 행복과 가족의 안녕을 부탁했는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웃과 사회에 행복을 발원하는 이 마음은 무슨 의미인가? 나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 질문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라 생각한다.

나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관되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인 연기법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수많은 인연 속에서 상호의존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은 채 온전히 내가 있고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 이로 인해 나에 대한 집착으로 탐욕이 생기고 우리 삶은 괴로워진다.

반대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찾다면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생긴다. 그것은 연기적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깨닫는 것이다. 인연 하나하나에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인연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우리가 주어진 인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코로나19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연기적인 삶을 이해한다면 모든 인연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공포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면에는 코로나19는 메시지라 생각한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우리 삶을 더 명확하게 제시한다. 자신을 돌아보며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고 코로나19와 대응하는 분들을 응원하고 고통 받는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찾는다.

또 코로나19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환경에도 긍정적인 요인을 주었다. 정지된 인간 활동이 지구를 건강하게 했다. 세계의 산업 활동이 중단되고 교통량과 공장 가동이 감소하면서 대기환경이 개선되었다. 미세먼지로 가득하던 하늘은 맑고 푸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 새로운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건강한 인류와 미래를 위한 지구의 청신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한다. 그리고 이런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그 속에서 변화하면서 새롭게 삶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커다란 재난이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죽음



사리암 양순이와 양숙이

의 공포가 다가오고 사람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때, 죽음이 덮쳐올 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로지 여법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²⁾

부처님 당시 꼬깔라 국의 빠세나디 왕과 부처님의 대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대처하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고, 두려움이 아닌 몸도 마음도 치유되고 있다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며,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든 인연이 하나가 되어 서로 배려하고 돕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재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모든 이들이 이 사실을 알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발원한다. ☸

2) 『생똥다니까야』 3:25, 신에 대한 비유의 경

자비명상을 통한 아름다움 찾기

혜동 / 사교과

이 차례법문은 십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십대가 아니시더라도 그때를 떠올리시며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십대였을 때, 저는 예뻐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 가족들과 친척들은 저를 보며 마냥 예쁘다고 했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니 그런 말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친구는 저보고 못생겼다고 큰 글씨로 '못난이 리스트'라고 편지봉투에 써서 편지를 주고, 또 어떤 친구는 제 머리카락이 철사 같다며 마요네즈를 머리카락에 바르면 부드러워진다고 생일선물로 마요네즈를 줬습니다.

친구들은 장난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충격이었고, '아름다움이란 뭘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아름다운 사람은 예쁜 사람일까? 또 예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얼굴은 브이라인에 쌍꺼풀이 있는 큰 눈, 코는 오뎅하며 입술은 작고 도톰하고, 머리칼은 가늘고 윤기가 흐르는 이런 기준들이 예쁜 여자의 조건이라고 매스컴에서 보이는 기준과 같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생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제 외모를 평가해보니, 해당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예쁘지 않구나.' 절망했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소녀에게 외모는 자신감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제가 예쁘다고 하셨던 부모님도 대학 들어가면 살도 빠지고 예뻐진다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시며, 예뻐지지 않으면 성형 수술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법정 스님의 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를 위로했던 몇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 큰 보람이란다. 그럼 아름다움이란 뭘까? 밖에서 문지르



고 발라 그럴듯하게 치장해 놓은 게 아름다움은 물론 아니다. 그건 눈속임이지. 아름다움은 누구에게 보이기 전에 스스로 나타나는 법이거든. 꽃에서 향기가 저절로 번져 나오듯 맑고 투명한 일이 안에서 밖에서 번져 나와야 한단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데, 마음을 닦으면 진정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글은 큰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속 사람들과 만나면 겉모습의 중요성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번져 나온다는 말은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정 스님 말씀처럼 '투명한 일이 안에서 밖으로 번져 나오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원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던 비구스님은 제가 합장하고 인사를 하자, 환한 미소를 보내 주셨습니다.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후광이 비쳤습니다.

'어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보아온 얼굴들 중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비구스님은 하루에 한 끼만 공양을 하시며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중에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마음 모두 내 어윤회고를 벗어나되"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스님의 모습을 보고 보리 마음을 내었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소녀시절, '아름다움'이라는 화두가 이렇게 출가라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지혜가 생겨 내면의 청정성을 확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믿고, 오직 선을 행하고 내면을 닦는 일로 밝고 맑은 모습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거울을 휴대하며 수시로 거울을 보지 않나요?

이제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 하루 착한 일을 했는지 물어보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길 행복해지길, 그리고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길' 이렇게 한 구절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곧 자비 명상입니다.

또한, 조용한 곳에 허리를 곧게 펴고 편히 앉아 눈을 감고 잠시 숨을 지켜봅니다. 숨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안정됐다면 자신을 향해 사랑과 친절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일으키며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길 행복해지길' 마음 속으로 되뇌어봅니다. 본인에게 자비의 마음이 충만해졌다면 그 마음을 확장시켜 지구상에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게 사랑과 우정의 마음을 보내며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길' 되뇌이면서 기원합니다.

자비 명상은 나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하며, 마음의 힘을 갖게 하고 본인뿐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빛나게 해줍니다. ☺



나를 바꾸는 소중한 소임생활

수정 / 사집과



벌써 사집 여름철이다.

뜨거운 여름, 새벽부터 이어지는 일정과 땀별 아래 농사를 지으면서 여전히 개인의 시·공간은 없고 바쁜 하루에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작년보다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깨어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힘겨웠던 치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호법신장님들과 역행보살님들의 가피력과, 그동안 소임을 살면서 가졌던 중압감, 책임감, 설새없이 돌아가는 스케줄을 치르면서 반복되는 혼돈과 권태로움을 인내하며 견뎌낸 힘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한 철, 한 철이 지날 때마다 내면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며, 지금까지 운문사에서 버티게 도와준 소중한 소임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것을 꺼내어 함께 나누고자 한다.

어리둥절했던 치문 첫 철의 소임은 정통대장이었다. 무엇보다 '복을 짓자'는 생각에서 용기 내어 자원한 소임이었다. 독립된 공간에서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니 오히려 수월한 면이 있었지만 도반 스님들과 다소 떨어진 생활을 하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고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다.

매일 목은 입장을 닦는 심정으로 하수구의 동판을 닦았고, 구석구석 열심히 청소했다.

그 결과, 나태하고 게을렀던 생활 습관들이 조금씩 고쳐져 갔고, 부지런히 뭔가를 찾아서 하려는 태도가 몸에 배임과 동시에 몸과 마음이 청정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여름철에는 종두를 살았다. 나는 굉장히 독립적 성향이 강하고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편

이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제 중의 난제였다. 종두 주 소임자스님 말을 잘 듣지 않고 탄죽을 자주 걸어서 상처를 주기도 했고, 다른 종두스님과의 불협화음으로 한 철 내내 마음이 힘들기도 했다. 그러나 종두를 살면서 화합하는 법을 배웠고 협동심이 길러졌다. 종두라는 소임은 운문사에서 가장 필요한 성실성과 배려심을 길러준다는 점과 개인 중심에서 대중 중심으로 생각과 마음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찬 소임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소임은 치문반 가을철에 살았던 회계 소임이다.

큰 부전스님의 지시에 따라 도반 스님들에게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지하고 소임표를 짜는 것이 주된 일이었는데, 소임이 중복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대신해 줄 스님을 찾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소임 대타를 부탁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척이나 괴로웠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혔기에 이렇게 힘들까' 하는 자괴감에 밤새 울기도 했다. 그만큼 많은 다수를 포용하려면 끊임없는 이타행과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소임이었다.

겨울 방학 때는 출타나간 스님을 대신해서 죽립현 찬시자를 살게 되었다. 어른스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다는 것을 큰 공덕이라 여겼고, 썩여진 시간과 일정에 맞춰 오로지 한 분의 수행자만을 위해 정성스레 공양을 준비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좋은 수행자가 되는 길은 정말이지 너무나 먼 길이구나' 하는 길매 순간 상기하면서 조금씩 하심하는 태도가 길러진 것 같다.

너무 어리숙해서 능숙하게 회주스님을 시봉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출가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참으로 치열했던 치문반 시절이었지만, 그때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계를 거쳐 가며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이 달라졌고, 어려움을 참아내는 힘도 커진 것 같다. 이 수행 환경에 감사하며, 운문사에 대해 점차 마음이 열리고 성격도 원만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번 여름철에는 큰 부전 소임을 살게 되었다. 치문반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맡은 소임을 수행의 주춧돌로 삼아 항상 나보다 먼저 대중스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며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역량에도 큰 소임을 연이어 맡을 수 있도록 그저 지켜봐주는 도반 스님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 응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무탈한 여름철이 될 수 있도록 청풍료를 잘 지켜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फ़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진유 / 사교과

지금의 나를 이 자리, '운문사' 라는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곳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왜 남들과 다른 길인 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즉사이진(卽事而眞, 매사에 진실 한가) 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 어느덧 출가한 지 4년이 지났다. 발심 출가해서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2016년, 십년간 출가에 대해서 생각만 하다가 행동으로 옮겼다. 이토록 오랜 세월이 걸린 이유는 소중한 인연을 쉽게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짱' 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다. 슬플 때 웃게 해주고, 죽고 싶을 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해준 나의 보배였다. 그런 짱이가 함께할 시간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짱이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했고 고맙게도 잘 견뎌 주었지만, 결국 내 앞에서 하늘나라로 떠나가고 말았다. 짱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너면서 나를 바라보던 모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짱이의 죽음은 '생생과 사死' 에 대한 화두를 사유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눈 을 연 못

모든 살아 있는 것은 언젠가 죽는다. 죽음은 누구든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랑한 짱이의 죽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완전한 행복을 찾아 출가 수행자란 길을 걷게 되었다.

출가한 첫날밤은 잊혀지지 않는다. 짐을 정리하고

도량 안내를 받고 나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 잠자리에 누우니 '정말 내가 스님이 되고자 여기에 와 있구나' 싶어서 환희의 눈물이 났다.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이 에이도록 보고 싶었다. 눈을 감으니, 엄마와 같이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던 나, 옷장에 가득하던 물건, 무엇보다 짱이와 장난 치며 놀던 때가 생각나며 슬픔이 밀려와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다. 그때 '사랑과 욕심을 좇아 걱정이 생기고, 걱정을 좇아 두려움이 생긴다. 만일 사랑을 떠나 버리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라는 글을 떠 올리면서 윤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때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시간이 흘러 삭발하던 날, '이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들어섰다'는 생각에 하늘로 날아갈 만큼 행복했다.

그러나 행자 생활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행자시절 부처님의 법을 매일 직접 만난다는 행복감과 여태까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육체적인 고됨이라는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경험했다. 시간이 갈수록 절집의 예법과 율력은 몸에 익어서 힘은 덜 들었으나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생겼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 앞에 가서 울면서 나를 힘들게 한 이를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했지만, 어느새 땀 흘리며 절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문득 '이것이 다 나로 인해서 벌어진 것'임을 알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곤 했다. 행자시절 고통과 번민이 생길 때마다 부처님은 나의 친구이자 행복이었다.

그렇게 행자 생활을 끝내고 운문사승가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치문반 첫 철, '초'를 다루는 생활은 어리바리한 나와 마주하게 해주었으나, 도반스님들과 함께 울고 웃는 생활에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다. 모가 난 나의 돌도 어느새 둥글둥글해져 가고 있었다. 서서히 운문사의 전통과 체제에서 하심과 인욕을 체득해나가면서 부족한 자비심을 배워 나갔다.

그러나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길목에 있는 나에게 병마가 찾아 왔다. 병마가 오니 '신심과 자비심이 부족해서 이름답고 수승한 수행처인 운문사에서 수행하지 못하게 마구니가 자꾸만 장난을 치나?' 라는 삿된 생각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즉시 굴러 떨어지듯이, 망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인가?' 라고 질문해본다.

『숫타니파타』에 "어리석은 사람은 물을 반쯤 채운 항아리와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어떻게 수행하면 물이 가득 찬 연못이 될지 답을 찾다보니, 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심 출가하여 지금까지 겪은 일련의 모든 일들이 바로 연못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한 수행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본다.

『법구경』에 "진정한 수행이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진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는 말과 같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마음 밖에 무명초가 지라지 않도록 사는 것이 출가 수행자로서 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해본다. ☺



어서와, 불교는 처음이지? 여관집 주인이 말해주는 '객진번뇌'

탄연 / 대교과

여기에 어떤 사람이 벽을 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상이 없는 사람은 벽이 그대로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잡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벽을 보고 있을 때 생각이 과거로 가서 충격받았던 때의 감정을 급격하게 일으키거나 미래로 가서 복잡함과 불안함을 몰고 왔다면? 벽의 세세한 부분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눈앞의 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바로 쓸데없는 '생각', 이것을 불교에선 '번뇌 망상' 이라고 하며 저는 이것을 '손님' 이라 명칭하겠습니다. 벽이 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손님을 어서 보내야겠죠? 손님 보내는 방법은 잠시 뒤에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과연 그럼 어떤 것이 자기 주인이겠습니까?

보고 있는 것이 나의 주인이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소리 자체가 주인이 아니고, 눈 앞의 물체가 주인이 아닙니다.

소리는 났다가 없어지고, 물체도 오면 가고, 냄새도 나면 사라지지만, 냄새인 줄 알고, 물체인 줄 알고, 소리인 줄 아는, 주인은 바깥경계와 같이 생기거나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 것, 출입하는 것은 '손님' 입니다.

주인은 늘 그 자리에서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주인이 바깥의 손님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소리는 이미 지나갔는데 여전히 지나간 소리 작용이 마음 속을 점령했다고 하면, 이전까지 잘 보이던 벽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미 지나간 소리나 물체가 짓밟고 남기고 간 흔적들, 이것을 객진번뇌客塵煩惱라고 합니다.

(손님, 나그네 '객객' _ 티끌 '진塵' 손님처럼 잠시 왔다가는 뜻, 거울에 잠시 내려앉은 티끌같이 많은 먼지와도 같다.)

구름(번뇌)이 달빛을 잠시 차단하지만 구름이 지나가면 달(마음)은 도로 본래대로 밝게 빛나는 것
과도 같은 이치죠.

달은 잠시도 스스로가 어두운 적이 없습니다.

아들 대학 입학 발표가 이미 났는데 아쉬워하며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로또 1자리 수만 맞았더라면 1등인데 하며, 2등에 만족하지 못하며 몇 날 며칠을 시름시름 앓습니다.

월급이 들어와서 너무 기쁜데, 점점 줄어가는 잔액을 보며 불안해하고 불행해합니다.

누군가 욕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소리가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은 괴롭다거나, 누군가의 칭찬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기분이 좋다는 것에 너무 쉽게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매여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객진 같은 생각에(손님) 마음이(주인) 지배되어 수동적인 줄 인형극을(괴로움의 원인, 인생이 고통인 이유) 하며,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환경'이라는 양식을 먹고 '객진번뇌' 라는 이동수단을 타고 늘 찾아오는 단골손님!

'행복' 손님, '기쁨' 손님, '홍분' 손님, '슬픔' 손님, '불안' 손님, '외로움' 손님들.

그 손님들이 '나' 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자아' 가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 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것(생각+객진번뇌)' 이 나라면 '나' 는 매 순간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가요?

이 이치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손님을 잘 배움하는 방법' 입니다.

깨달음이란 따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것' 을 의미합니다.

없던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늘 있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다,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했다면, 더 이상의 인형극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형극의 줄을 끊고, 손님들이 오면 오는 것을 알고, 주인으로서 손님들에게 손님답게 대접하는 능동적인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에필로그】

저는 탄원 여관을 수십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별의별 손님들이 다녀갔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도 몰랐고, 요령도 없어서, 그저 손님만 오면 좋다고…….

특히 '행복', '기쁨', '홍분' 손님이 오면 얼마나 반갑고, 또 나를 매료시키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겨울 따뜻한 안방을 내어주고 나는 사랑채에 벌벌 떨면서 잤지 뭐예요.

또 어떤 날엔 '불행', '불안', '초조' 손님들이 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 기세에 놀라서 그만, 또다시 안방을 내주고 사랑채 생활을 했지 뭐예요?

이렇게 번번이 안방을 내주다 보니, 재 방이 없어진 거예요.

제 삶의 영역을 객진의 손님들에게 내주다 보니 내 삶이 없어지고, 주인인 '나' 는 사라졌습니다.

뒤늦게라도 그 사실을 깨우쳐서,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객진번뇌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객진번뇌(손님)와 하나 되어 세상 무너질 듯 괴로워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제 3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의 위치(주인)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손님이 왔다가 다시 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곤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말로, 진상 투숙객(?)에게는 웃으며 잘 타일러 보내는 요령까지도 생겼답니다!

내 삶에 주인이 되어 사는 힘! 내가 중심을 잡을 힘! 귀중한 『능엄경』¹⁾에서 배워 봐요! ☺

1) 『능엄경』 - 제1권 제3분 「객진번뇌」

한국불교 근본 경전 중의 하나, 10권. 『금강경』·『원각경』·『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불교 전문강원의 사교과四敎科 과목으로 채택되어 학습되었다.

원명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며,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수능엄경」이라고도 한다.



선정禪定과 오신채

덕안 / 대교과

지난 겨울방학 때의 일이다.

수행하는 스님들을 늘 보살피 오시던 한 보살님으로부터 피자공양이 보내져왔다. 행자님과 학인스님들을 포함한 젊은 스님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순간이었다. 평소 먹고 싶었던 피자라며 신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잠시 후 스님들의 얼굴이 돌연 시무룩해지고 말았다. 매사에 철두철미한 사형스님이 피자 네 판을 하나하나 검사해 보고 먹어서는 안 될 양파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오신채까지 제하고 피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보살님이 깜박하신 것일까.

“피자가 식기 전에 아랫마을에 갖다 드려야겠다.”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피자를 들고 나가는 사형스님의 뒷모습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스님들의 얼굴에 살짝 아쉬움이 묻어났다.

『능엄경』 제8권에 바른 삼매수행으로 청정하게 닦아 증득하는 수행의 계위인 십신+信 십주+住 십행+行 십회향+廻向 사가행四加行 십지+地 등각等覺 금강혜金剛慧 묘각妙覺 57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기 바로 이전 부분에서 바른 삼매 수행에 대한 아난존자의 질문이 나온다.

‘삼마지를 닦아 증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세 가지 점차법漸次法 즉, ‘첫째, 오신채를 끊을 것[除其助因], 둘째, 계율을 잘 지킬 것[刳其正性], 셋째, 자기에게 나타나는 업을 거스를 것[違其現業]’ 으로 답변을 하셨다.

비유하시기를 마치 본래 깨끗한 그릇에 묻은 독밀毒蜜을 제거하려면 뜨거운 물과 재와 향으로 그릇을 세척한 다음이라야 감로수를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셨다. 청정한 보리심을 내어 불퇴전의 정진을 한다할지라도 이 세 가지 점차법을 수행하여 그동안의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해내어야 비로소 삼마지를 증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다.

그런데 왜 세 가지 점차법 가운데 첫째가 오신체를 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부처님께서서는 오신체는 익혀 먹으면 음욕淫慾을 발하게 하고 생으로 먹으면 성냄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도에 장애가 된다고 설하셨다. 오신체가 음심淫心과 진심瞋心을 일으키게 하는 간접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오신체를 섭취하면 당연히 두 번째 점차법인 계율을 수지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오신체를 먹을 경우 수행자를 보호하는 신신들이 그 냄새를 싫어하여 멀리 떠나버리고, 반면에 나쁜 귀신들은 그 사람의 입술을 핥으며 좋아하여 항상 귀신과 함께 있게 되므로 나날이 복덕이 소멸하여 길이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오신체를 금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능엄경』에서 뿐만 아니라 각 『율장』과 『범망경』, 『열반경』, 달마대사의 『혈맥론』에서도 거듭 기술되고 있다. 인도의 전통의학서 『아유르베다』에도 ‘오신체는 심신을 흥분시키고 생식기관을 자극하며 위산과다와 혈액 속에 유독성 열을 발생시키고 정신을 우둔하게 만든다.’고 나와 있다.

혹자는 수행자의 육류와 오신체 섭취에 대해 초기경전에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는 탁발수행을 하는 남방불교 스님들이 음식을 가리지 않는 것을 근거로 수행자가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합리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2천 5백년 이전에 있었던 부처님 가르침의 진위眞僞 여부를 따지고 경전에 나오는 말씀 자체를 부정하면서까지 육류와 오신체 섭취를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남방불교 스님들의 탁발문화를 빗대어 우리나라 절집안에서 오래도록 이어온 음식 문화 전통을 빛바래게 하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평소에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원을 달리 말하면서 음식에 있어서는 소승불교의 문화를 따라야 한다는 이론일까.

물론 오신체의 약성藥性이 현대사회의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적 문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병해病害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만성질환 등을 예방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선정禪定을 닦는 수행자에게 있어서만큼은 오신체가 큰 장애가 된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참고하여 자기 수행의 성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최근 물리학계는 닐스보어의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초끈이론’이 발표되어 과학이 점차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서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즉, 모든 물질의 본질은 소립자나 쿼크의 형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작은 에너지의 파동이

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물질의 본질 그 자체는 에너지의 파동으로 이뤄져 있고 그 에너지의 파동이 우주 전체에 가득하여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역시 거대한 하나의 에너지 파동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수많은 에너지장들은 서로 다른 진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에너지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에너지장의 진동과 연결되어 끝없는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사람이나 동물, 식물은 각각 서로 다른 유기체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의 에너지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곧바로 A의 에너지와 섞여 일정 기간 동안 몸 안에 축적이 된다. 사실 그렇게 되면 그 당사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에게는 A의 에너지가 알게 모르게 전해지게 된다.

실제로 인체의 최소 단위인 원자핵 내의 소립자 파동 변화를 읽어내는 기계인 QRS(양자공명분석기)를 통해 실험해보면 인간의 에너지장, 일명 오라(aura)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다.

신기한 것은 육류를 회로에 연결시키지 않고 피험자가 육류를 생각하기만 해도 인체의 에너지 저항치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발견되었다. 동물과 식물은 인간과 서로 다른 에너지와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장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능엄경』에서 아난존자의 질문처럼 부처님의 삼마지를 닦아 증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출가수행자이건 재가불자이건 누구나 삼점차 수행법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자가 어찌 수행의 절대적 도구라 할 수 있는 육신을 구성하는 음식물 섭취를 가벼이 생각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리의 수행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장애를 없애주는 삼점차 수행법에 있어서라.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담백한 사찰음식이 현대인에게 웰빙 식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고유한 전통사찰음식을 현대문화에 알맞게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승가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하고 적절한 교화 방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분꽃 속에서 부처를 보다

진욱/사교과

불이문을 지나칠 때면 응당 길 양쪽에 둥근 화단을 만나게 됩니다. 따스한 봄, 4-5월에 노랑, 분홍 두 색깔의 튤립이 피고 지고 나면, 6월에서 10월까지 여름에는 하얗고 붉은 분꽃이 피어납니다. 이 화단을 가꾸는 건 사교반 소임입니다.

올해 봄은 아쉽게도 늦은 입방으로 튤립을 보는 것도 놓치고 분꽃 썩마저 손이 가지 않아 우후죽순 자리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피고 지는 꽃들도 소임자가 되어보니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호미를 들고 적당히 썩어 주고 물도 줍니다.

그러는 사이 바깥 마른 잎은 해가 진 후에 물을 쥐어 잎이 타지 않는다는 도반스님, 설현당 상반스님은 흙을 갈아 돋워 주는 것만큼 좋은 거름이 없다며 함께 일귀주시고, '거름을 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어느새 살며시 거름을 주고 가신 울주스님, 빈자리 없이 끌고루 옮겨 심어주라는 회주스님, 옮겨 심을 때도 가운데는 큰 것으로 가장자리는 작은 것으로, 줄기에 붉은 기가 있는 것은 붉은 꽃이 피고, 그렇지 않은 것은 흰 꽃이 핀다며 조화롭게 옮겨 심으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듯 모두의 관심 속에서 분꽃은 예년보다 고르지 못하지만 붉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에서 시작해 16세기 유럽 전역에서 귀족이나 대상인들의 사랑을 받은 고귀한 튤립과 남아메리카에서 시작해 달맞이꽃처럼 밤에 활짝 피어 꽃말조차 수줍음인 분꽃. 영어로는 오후 4시 무렵에 꽃이 핀다고 'four o'clock flower' 라고 한답니다.

지난 3년 동안 분꽃을 보면서도 '낮에 햇볕이 뜨거워 시들어있다' 무심코 생각만 했지 늦은 오후에 피는 꽃이라는 것은 생각 밖이었습니다. 화단의 흙을 일구다 보니 흙속 더 깊은 곳엔 튤립 알뿌리가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봄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게지요. 분꽃도 꽃이 지면 씨를 맺고 다시 땅 속에서 초여름을 기다립니다. 한 공간에 섞여 있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서로 방해하지 않고, 상즉상입합니다.

명부전 금강경 동경 후에 읽는 범성계가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세십세호상즉九世十世互相卽, 잉불잡란격별성仍不雜亂隔別成



구세와 십세가 서로 상즉해 있지만, 뒤섞이지 않고 제 모습을 이룬다.

구세九世란 과거·현재·미래 삼세가 있는데, 각각의 삼세에 모두 과거·현재·미래가 있으니 구세가 되고 삼세에 속하지 않는 한 순간, 현전일념現前一念 하나를 더 보태서 십세十世라 한다. 구세십세九世十世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호상즉互相卽,

그러나 섞이고 혼란하지 아니해서 격별성隔別成, 구분되어 따로 따로 이루어진다.

태양처럼 고귀한 톨립과 달처럼 수줍은 분꽃이 한 화단 안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몇 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운문사에서도 죽림헌을 필두로 삼장원 어른스님, 채경당 대학원스님, 실현당에서는 화엄반, 금당 사교반, 청풍료에서는 사집반과 치문반이 각각의 개성으로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흙 속의 씨앗들이 숨죽여 인내하며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도 제철을 찾아 피어나는 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 대중은 한참이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이나 함께 밥 먹고 수행하고 잠자면서 서로를 호념하고, 동시에 경책하며 정진하는 대중의 위력을 그리워했습니다.

오분율(彌沙塞部和醯五分律) 제 19권에 “우바리문불優波離問佛 악비구입승중若比丘入僧中 응이기법應以幾法. 불언佛言 응이오법應以五法. 일하의一下意. 이자심二慈心. 삼공경三恭敬 사지차제좌처四知次第坐處. 오불론설여사五不論說餘事”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계 제일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었습니다.

“비구가 승가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법을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가지 법으로 해야 하느니라. 첫째는 뜻을 낮추는 것이니 하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비심을 내는 것이며, 셋째는 공경하는 것이고, 넷째는 차례대로 앉는 자리를 아는 것이고, 다섯째는 다른 일은 논하지 않는 것이다.”

즉, 대중 생활을 하면서 명심하고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덕목으로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으며 하심하고, 자비심을 내고, 공경하며, 차례와 앉고 서는 자리를 알고, 잡다한 말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대중이 모여 수행하고, 그 안에서 전통을 이어나가며 부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참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는 요즘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중에서의 다섯 가지 덕목을 매일 새기며 구세십세호상즉, 잉불잡란격별성인 우리 대중 각각의 불성이 청정하게 지켜질 발원합니다. ॥



『세상에 끌려 다니지 않는 단단한 마음공부』를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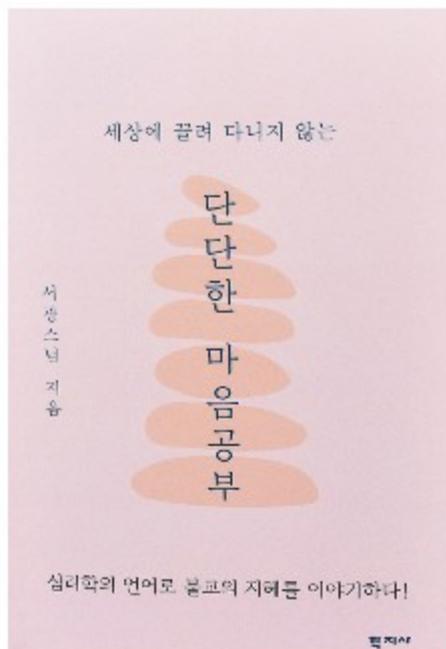
서보 /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답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늙고 병들고, 죽을 뿐인데...’ 이렇게 비관적이었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출가한 속사정은 명백히 ‘속세로부터 가출’이었습니다. 곧 외면은 삭발염의한 모습을 하여 그럴듯한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내면은 소음으로 치성했습니다. 막 승가공동체에 합류한 행자는 거칠고 투덜대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식唯識, mind-only, consciousness-only의 의미는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과 시간에 머물러도 모든 이가 그 순간을 제각각 다르게 경험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앎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중략... 경험을 하고 또 알고 반응하되, 그 경험이나 앎에 집착하지 말고, 즉 머물지 말고 마음을 일으키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應無所住 而生其心)는 것입니다.”(본문 50쪽)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지난 시간이 마치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동안 구절구절마다 저자인 서광 스님께서 수행자로서, 연구가로서, 상담가로서 고심하신 진정眞情이 잔뜩 느껴져 밑줄을 많이도 그어가며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고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저장식을 들여다보는 좋은 소재입니다.....중략....



우리의 저장식에는 무수한 삶을 거치면서 온갖 종자가 다 들어 있지만 기왕이면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 선한 것이 터치되고 싶은 것입니다. …중략… 반대로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우리 내면의 어떤 싫어하는 것이 터치되는 겁니다.”(본문 62쪽)

다시 그 행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툭툭거리던 행자가 이 공동체 안에서 벌써 짧지 않은 세월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장한 원願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빙긋이 미소지어 주시던 노스님·어른스님들과, 먼저 허리를 굽혀 오시며 숙연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시주의 은혜, 나란히 고무신을 벗고 세심한 발끝으로 주변의 것까지 정돈하는 도반스님, 등불이 필요 없는 꼭 찬 보름달빛 아래 도량석 호흡으로 깨어나는 때와, 짜릿짜릿하게 머리 열꽃까지 냉각시켜주는 청량한 법당에서 예를 다하는 때, 온 바를 알 수 없으나 허리를 펴고 쉬라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바람 곁에서 위안이 되고 격려를 받은 경험들.

‘아! 비단 나만의 경험만이 아니겠구나!’ 이렇듯 슬금슬금, 당기고 당겨져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다보니 아! 부처님과 제대조사께서 이렇게 전하고 전해서, 구하고 구하여 온, 이것이었구나!’

“도겐 선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자기를 공부하는 것이고, 자기를 공부하는 것은 자기를 잊는 것이고,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일체와 친해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중략… 아집我執은 다른 말로 자기에게 솔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불교공부를 하는 최상의 방법은 자기에게 솔직한 것입니다.”(본문 182쪽)

이제야 온갖 것이 옛 수행자들의 마음과 은혜임을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할 것 없이 그저 믿고 가려합니다. ‘더 잘 해야지’ 하는 생각 없이 ‘그저 해야지’ 합니다.

대승大乘의 불보살님들께서 보여 주셨듯이 그저 세세생생世生生하겠습니까. ‘세상에 끌려 다니지 않는 단단한 마음공부’ 에 터치되어 ‘범부가 불가佛家에 끌려와 대박난 이야기’ 를 늘어 놓아보았습니다.

“... 세세생생 쌓아 온 저장식의 종자를 한꺼번에 개량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감정·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자각하면서 하나씩 축정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해 가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기억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고,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나와 다르게 듣고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는 불건강한 종자를 저장하지 않고 지혜와 자비심의 종자를 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본문 52쪽) ㉞

두 번째 화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돌려줘야만

하는 이 시대에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괴로움의 패턴에서 탈출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

부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이 모욕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모욕을 청산하기 전까지 그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거미줄처럼, 그물처럼 이리 저리 얽히고설켜어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 어디로 흘러가는 지도 모르는 채, 떠내려간다.

사람의 존엄성을 문게 될 만큼 잔인하기 그지 없는 수법으로 몸과 마음을,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사회, 남에게 받은 해를 그만큼 되돌려 주지 않으면 건디지 못하는 보복성 질은 많은 일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이루어지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돌려줘야만 하는 이 시대에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불교 초기 경전인 빠알리경에 나오는 욕설을 하는 바라문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웰루와나 승원에 머무시는 동안, 이 바라문에게는 욕설로 매우 악명이 높던 형이 있었다. 악꼬사까 바라드와자(Akkosaka Bharadvaja, 욕하는 바라드와자)로 알려져 있었던 그는 동생이 비구 승단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 그는 곧장 승원으로 가서 부처님에게 욕설을 하였다. 부처님께서 그의 차례가 되자, 이렇게 그에게 물었다.

"바라문이며, 네가 손님들에게 어떤 음식을 바쳤는데, 그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집을 나갔다고 가정해 보자. 그 손님들이 너의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이 질문에 그 바라문은 그 음식은 자신의 것이 된다고 대답했다. 그 대답을 듣고서 부처님께서, "바라문이며, 나도 네 욕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욕설은 오직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의 증여론에 따르면 선물과 증여는 세 가지 계기가 있다고 한다. 선물을 주는 것, 받는 것, 그리고 돌려주는 것이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선물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 부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이 모욕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모욕을 청산하기 전까지 그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물의 역할을 모욕이 대신하면서 원한의 연결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요즘 사회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돌려줄 기회를 바라고, 모욕을 가할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도덕의 이름으로 가장 반윤리적인 일이 벌어지지만 이것은 모두 내가 상처받았고 그걸 돌려줘야 한다는 걸로 정당화된다. 이런 괴로움의 패턴에서 탈출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

모욕을 주지 않거나 받지 않을 수 있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된다. 부처님께서도 받지 않으셨다. 『상윳따니까야』에 「두 번째 화살의 비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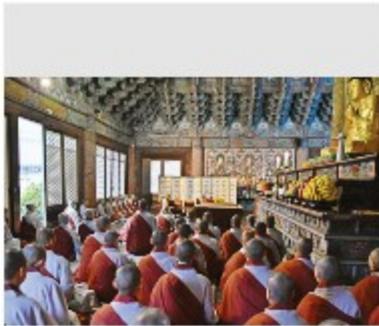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그는 육체적 느낌과 마음의 느낌에 의해서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다. 마치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는데, 다시 두 번째 화살에 또 다시 맞는 것과 같다. 그는 두 개의 화살 때문에 괴로움을 모두 다 겪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욕을 듣는 순간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 점점 더 화가 나면서 '감히 나에게 욕을 해?'라고 그 상황이 되뇌며, 분노는 눈덩이가 불어나듯 점점 커지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이며, 세 번째 화살인 것이다. 욕은 한 번 들었지만, 자기 마음 속에서 거듭 분노하며 화를 키우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욕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그래서 경전에서 “그는 두 개의 화살 때문에 괴로움을 모두 다 겪는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시킨 슈퍼전파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치를 떨며 격한 분노를 쏟아내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은 예시가 되리라 생각한다.

살다보면 누구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그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한다.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모두 불편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죽한 줄 알고 분노를 키우면 키울수록 결국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일 뿐임을 깨달아서, 되풀이하여 분노를 키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의 화살을 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괴로운 만큼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말이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화살을 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하인거 결제 재



▲ 단오산행



▲ 여름철 죽비전달



▲ 사집반 야채농사회함



▲ 법륜 스님 특강

운문 소식

(이번 호에는 불교가 휴간된 관계로 불철 소식을 함께 실었습니다)

- 6월 3일 불철 개학공사 및 죽비전달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6일 하인거 결제 재와 금강경 기도 입제가 있었습니다.
- 6월 9일 경주 동국대 병원에서 운문사로 직접 방문하여 전 대종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대중생활에 임했습니다.
- 6월 11일 저녁예불 후 신입생 환영회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15일 학인스님들의 관물장 검사가 있었습니다.
- 6월 19일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
- 6월 20일 범공양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2일 치문반이 대종스님들께 공양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 6월 25일 단오산행을 다녀왔습니다. 회주스님 구순 다큐멘터리 상영이 저녁7시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8일 불철 종강 및 자자가 있었습니다.
- 6월 29일 여름철 개학공사 및 죽비전달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6일 저녁예불 후 선열당에서 포스트 코로나19 관련 영상상영이 있었습니다.
- 7월 7~9일 제28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에 사교반 26명, 사집반 1명이 수계하였고 일진 율주스님께서 갈마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 7월 17일 여름철 자자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포교 및 자연환경 개선에 대한 고찰과 일주일에 한 번 비닐 안쓰기 운동 등에 대한 학인스님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집반 야채농사회함이 있었습니다.
- 7월 20일 저녁예불 후 선열당에서 EBS 다큐멘터리 극한직업 "쓰레기에서 찾은 보물" 영상 시청이 있었습니다.
- 7월 24일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
- 7월 29일 선열당에서 법륜 스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자제 격리 중에 어렵게 열린 특강은 한 모금의 감로수와 같았습니다.
- 8월 1일 사시 범공양이 있었습니다.
- 8월 5일 청풍료에서 법륜 스님의 학인스님들의 수행에 관한 법문이 있었습니다.
- 8월 11일 ~12일 운문사 스님들을 위한 제 68차 동원 지도자연수회가 "포스트코로나 행복을 보여ZOOM 온라인 올리잇"이라는 주제로 2일간 운문사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8월 13일 여름철 마지막 자자 및 방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습니다.
- 8월 14일 ~9월 18일 35일간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신 분

- 정해옥 • 윤경숙 • 부유부동산 • 노기용 • 이도원 • 이유진 • 하옥희
- 이정숙 • 대인경(조정일) • 권미숙 • 삼신사 • 최희영 • 광주 정안사 • 장미경
- 명원 • 최호철 • 우하길 • 주건우 • 지호성 • 용흥사 • 문수정 • 한미영
- 양명희 • 정용배 • 정원석 • 흥천사 • 윤금자 • 김인태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이 세상의 고통은 자기 몸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있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네 사람의 수도자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인가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논쟁의 요지를 듣고 나서 말씀하셨다.

수도자들이여!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은 자기 몸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제일 큰 고통이다. 육체가 있으므로 해서 허기와 갈증의 고통, 춥고 더운 고통, 화를 내는 고통, 공포의 고통, 욕심의 고통, 원한의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이 몸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모든 화근의 근원이 아니겠는가. 몸이 있으므로 해서 마음이 어지럽고, 생각하는 끝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 몸은 고통을 담고 있는 그릇이며, 모든 고통은 전부 여기에 모여들고 있다. 과거·현재·미래 삼세의 만물이 대개가 서로 죽이는 것도, 내 몸을 뭉고 생사에 떨어뜨리는 것도 모두가 이 몸이 있으므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 세상의 고통을 떠나기를 원한다면, 삶이나 죽음의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에서 불도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속세를 떠나 불도를 배워야 한다.



『법구비유경』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나야말로 나의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신을 잘 다룰 때
세상에서 얻기 힘든
자기라는 주인을 얻게 된다.
- 본생담 -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여름호·통권 제152호·2020년 8월 13일 발행·등록 1996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생(전임호) 고문·원범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범성 / 편집위원·범웅, 무궁, 서욱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범성(무채널)께 향하는 발걸음) / 삽화·진하(下)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63)426-3395